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 현대 일본사회와 무사도 연구

-애니메이션 <은혼>을 중심으로-



2014年 8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이 송 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현대 일본사회와 무사도 연구

-애니메이션 <은혼>을 중심으로-



2014年 8月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이송은

이송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年 8月



主 審 장 상 언 (印)

委 員 김 진 기 (印)

委 員 신 종 대 (印)

# 목차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4
3. 선행연구 .....	5
II. 무사도(武士道) .....	10
1. 무사(武士)의 등장 .....	10
가. 무사·사무라이(侍)의 어원 .....	10
나. 시대 변화에 따른 무사관 .....	11
2. 무사도의 정의 및 특징 .....	12
가. 무사도의 정의 .....	12
나. 무사도의 사상적 특징 .....	14
3. 시대별 무사도의 특성 .....	27
가. 헤이안(平安)·가마쿠라(鎌倉)시대 .....	27
나. 무로마치(室町)·센코쿠(戰国)시대 .....	30
다. 에도(江戸)시대 .....	32
라.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시대 .....	35

<b>Ⅲ. 애니메이션과 무사도</b> .....	<b>38</b>
1.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특징 .....	38
2. 일본의 애니메이션 .....	38
3.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銀魂)> .....	40
4. <은혼> 작가소개 및 줄거리 .....	42
가. 작가 소개 .....	42
나. <은혼> 줄거리 .....	43
5. <은혼>의 시대배경 및 캐릭터 분석 .....	44
가. <은혼>의 시대배경 .....	44
나. <은혼>의 주요 캐릭터 분석 .....	48
다. <은혼>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	55
6. <은혼>에 투영된 무사도 .....	59
가. 베니자쿠라편(紅桜編)	
: 카츠라(桂) 암살과 타카스기(高杉)의 기헤이타이(鬼兵隊) .....	60
나. 신센구미 동란편(真選組動乱編)	
: 신(真)센구미 참모 이토(伊東)의 하극상 .....	63
다. 잇코쿠케이세이편(一国傾城編)	
: 요시와라(吉原) 기녀 스즈란(鈴蘭)의 약속 .....	67
<b>Ⅳ. 결론</b> .....	<b>71</b>

## 표 목 차

<표 1> <은혼>등장인물과 실존인물 .....	55
----------------------------	----

## 그림 목차

<그림 1> 요로즈야 .....	56
<그림 2> 신(眞)센구미 .....	57
<그림 3> 죠이시시 .....	58



**Analysis of modern Japanese society and the Bushido**  
**-Based on the animation < Gintama >-**

Song Eun Lee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bushido - the Soul of Japan - was thought to be one of factors in modernization of Japan, and is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again recently. The bushido seemed to have declined with the end of the war. In spite of official disband since the Meiji Restoration, it is being highlighted in today's aspects such as economy, culture, lifestyle, ethics, and etc. Any country may clear away with the old legacy and try a leap forward, but there may not be an absolute break from the past. Nitobe Inazo claimed in his book 『Bushido』 that "The Bushido may have been disbanded by an independent moral law, however, its characteristic lessons, prospects and glory shall live on forever" and it has been proven.

Obviously, there may be many reasons for the "refocusing of bushido" these days.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Japanese thinking and consciousness. Many scholars including Nitobe claimed



that the bushido was the foundation of the Japanese spirit or essence. It is most appropriate to analyze the bushido in order to understand Japan and Japanese as it still represents Japanese spirit.

The animation as a medium that represents Japanese culture shall be utilized to study the bushido to help with understanding not only of Japan but also to students studying Japanese. It also is to raise proper awareness of Japanese society and culture and to aid in learning Japanese as foreign language through the animation that is easily available to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bushido is analyzed through the animation <Gintama> by organizing its concept and changes in each era, and contemplating the bushido in the animation.

Major episodes of <Gintama> such as the Benizakura-Hen, Shinsengumi revolt-Hen, and Courtesan Of a Nation-Hen contain seven characteristics and spirits of bushido categorized by Nitobe Inazo as "loyalty", "courage", "courtesy", "honor and devotion", "self-control", and "truth and integrity". Those seven characteristics and spirits of the bushido were beliefs to adhere to as human beings such as moral, duty and rights.

Many characters in <Gintama> such as Yorozyua, Shinsengumi and geisha of Yoshiwara keep their own beliefs firmly. There are other who live by their firm beliefs and try to live with righteousness: namely the Warriors. And the spirit they are trying very hard to abide by is the bushido. Hijikata of Shinsengumi who readily sacrifices his life for his lord, Roten who sacrifices one of his arms to keep the promise with his loved one as a lord's man, and Yorozyua who helps them so that they may keep their promises are all demonstrating the behavior and spirit of bushido which are still very much present in the lives of Japanese.

# I. 서론

## 1. 연구목적

‘일본’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벚꽃(桜), 기모노(着物), 스시(鮭), 스모(相撲), 도쿄타워, 천황(天皇), 애니메이션(アニメーション), 무사도(武士道) 등 여러 가지를 말할 것이다. 이 중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본에 대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문화라 할 수 있다. 2013년 구글(www.google.co.kr)의 인기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식인 거인이 성벽을 파괴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상과 인간의 복수극을 그린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이 종합1위를 차지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일본어 학습자를 비롯해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비학습자라도 의식·무의식적으로 일본문화를 흡수하고 있다. 그 중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한 문화접촉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일본정신을 대표하는 것은 사무라이(侍)정신 즉, 무사도(武士道)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정신을 다도·무사도 등에서 찾으려고 하는 예로서 아래와 같은 관심을 들 수 있겠다.

일본 문화의 전통을 이루는 주류는 武士文化이며 바로 武士道정신이다. 현대의 일본 국민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는 이러한 무사 문화 전통인 武士道정신이 강하

---

1) “2013 인기 검색어 분석해 보니...명품 대신 ‘중고’ 폭풍 클릭” <중앙일보>  
2013년 12월 11일 <http://joongang.joins.com/article/969/13363969.html?ctg>

게 자리 잡고 있다. 한 민족이 일어서고 발전해 나가는 데는 민족 특유의 정신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武士道정신은 현재의 일본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온 힘의 원천을 이루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sup>2)</sup>

하지만 일본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는 일본정신을 ‘존재하는 것의 마음을 알아내는 일’ 또는 ‘유교로써 다스려야 할 때에는 유교를 택하고 불교가 알맞을 때는 불교로써 하여라. 이것들은 모두 그때 그때의 일본정신이다.’ 고 말하였다. 어느 하나의 사상이나 이론을 두고 ‘이것이 일본 정신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무사도 역시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 많은 학자들이 일본정신의 대표격으로 무사도를 꼽고 있다. 『무사도(Bushido : The Soul of Japan)』의 저자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稻造) 역시 무사도를 일본을 상징하는 정신이라 말하고 있다.

무사도는 일본의 활동정신, 추진력이었고 또 현재도 그러하다. 무사도는 하나의 무의식적인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일본 국민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왔다. 사무라이는 일본 국민의 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이기도 하였다. 사무라이는 전민족의 바람직한 이상이었다. 꽃은 벚꽃이 제일이고 사람은 사무라이가 제일이라는 노래처럼 긍지를 갖고서 사무라이의 정신세계를 설명한 것이 본서이다.<sup>3)</sup>

일본의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sup>4)</sup> 또한 “무사도는 일본인의 길입

---

2) 조형기(2002), 「日本 武士道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

3) 니토베 이나조(2010), 일본고전연구회(역), 『무사도』, 문, p.13.

4)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 1861.4.2 ~ 1930.3.28. 일본 메이지(明治)·다이쇼(大

니다. 이를 일본 도덕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sup>5)</sup> 이외에도 여러 논문이나 서적에서도 무사도를 일본인의 중요한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논문, 서적 또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무사의 모습을 통해 무사도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처럼 일본 무사도는 일본인의 근본적 정신이나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인들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 무사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일 것이다. 일본문화의 대표라 불리는 애니메이션이란 매개체를 통해 무사도에 대해 살펴본다면 일본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본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매개체 중에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무사도가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일본어 학습자에게 일본을 이해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애니메이션을 통한 교육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수방법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자들이 일본사회나 문화 등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제2외국어 학습의 용이성을 인식하길 바라는 목적도 있다.

다니엘 핑크(Daniel Pink)은 인식과학자 마크존슨(Mark Johnson)의 『문학적 사고』를 인용하여 ‘이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인 능력은 이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며,

---

正)시대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종교가·무교회주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배출하여 현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교신·함석헌을 통하여 한국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5) 우치다 준조(2012), 윤희기의 4명(역), 『일본 정신과 무사도(고차원적 전통 회귀로의 길)』, 경성대학교출판부, p.5.

계획을 세우고 설명하는 주요수단이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사고 대부분은 스토리로 정리된다.<sup>6)</sup>

즉, 이미지화한 스토리는 사고의 기본적인 도구로서 인간은 경험, 지식 그리고 사고의 대부분을 스토리로 정리하고 저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많은 학습자들이 애니메이션의 시청만으로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무사도 정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무사도의 고찰을 통해 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보는데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무사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 중심의 논문과 서적에서 채택하거나 그 내용을 참고로 분석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 시대적 구분은 일본 역사서와 논문을 참고하여 헤이안(平安)·가마쿠라(鎌倉)·무로마치(室町)·센코쿠(戰國)·에도(江戸)·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시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무사도의 기원과 정의, 사상 등에 관한 것은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Bushido : The Soul of Japan)』를 중심으로 각종 논문, 서적, 인터넷 등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분석은 지금까지 방영된 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래에 방영되어 남녀노소

---

6) 다니엘 핑크(2012), 김명철(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사, p.118.

할 것 없이 사랑받는 <은혼(銀魂)>을 중심으로 무사도와 일본정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내용분석 중에서도 내러티브 혹은 서사 구조 분석 위주로 할 것이다. 내러티브 혹은 서사 구조란 사건들의 결합 방식이나 연관 관계를 통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결합 방식이나 연관 관계는 서사물의 표현 층위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서사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사구조를 밝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일단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 속 무사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의 정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일본의 무사도를 다룬 논문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국내 연구 중심의 문헌연구와 한국서적 및 번역된 일본서적을 채택하여 그 내용을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최길성(1980)의 「日本の 武士道の 忠孝와 죽음」<sup>7)</sup>은 일본 근대화를 종교와 사회의 관계 중심 속에서 무사도의 윤리사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연관성 안에서 일본사회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근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를 연속시킬 수 있는 정신 구조인 무사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최길성(1980), 「日本の 武士道の 忠孝와 죽음」, 『일본학지』 제1집, 일본연구학회, pp.61~85(25쪽).

권만혁(1996)의 「日本の 武士道와 生活哲学」<sup>8)</sup>은 ‘武’를 일본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였다고 보며 일본문화를 깊이 탐색하는데 있어 무사도의 성립, 정착과정, 생활신조 등을 중점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무사도를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일본적 기질로서의 밑거름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자(1999)의 「일본정신-무사도」<sup>9)</sup>는 19세기 후반 대한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근대국가 형성에서 한국은 실패한 반면 일본은 성공하였으며 성공의 중심을 무사도로 보고 일본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士’의 성격을 비교, 분석을 시작으로 무사의 사상을 일본정신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특히 전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을 무사도와 연관 지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논하고 있어 메이지 시대의 무사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정학(2000)의 「日本 武士道 精神 現代的 意義」<sup>10)</sup>는 먼저 일본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정신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무사도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리고 현대일본인의 특성과 무사도의 성립과 정신에 대해서 밝히고 무사계급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근대화의 발전 배경과 무사도의 연관성을 통해 당시사회의 특징뿐 아니라 오늘날의 일본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영기(2001)의 「日本の 武士도에 関한 研究」<sup>11)</sup>는 일본의 강력한 경제력의 원인을 무사도로 보고 무사도의 발생, 시대별 무사도와 에도시대의

8) 권만혁(1996), 「日本の 武士道와 生活哲学」, 『시민인문학』 제3집,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pp.19~31(13쪽).

9) 고영자(1999), 「일본정신-무사도」, 『일본학』 제1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14~237(24쪽).

10) 이정학(2000), 「日本 武士道 精神 現代的 意義」,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제8집 1호, pp.161~180(20쪽).

11) 윤영기(2001), 「日本の 武士도에 関한 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학자의 사도론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 일본인의 정신의 밑바탕을 무사도라 밝히고 있다.

조형기(2003)의 「日本 武士道에 관한 研究」<sup>12)</sup>는 무사도의 정의, 무사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교, 신도, 유교와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역사에서 나타나는 무사도의 형성과정을 통해 일본이 세계강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을 기술하고 있다.

김진표·차명환(2003) 「에도(江戸)時代 以前 日本武士道の 思想的 特質」<sup>13)</sup>에서 세계화 현상 속에서 일본인의 사상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도덕적 가치를 무사도로 보았다. 그리고 무사도의 역사, 발전과정, 무가 사회의 규범등을 통해 무사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규명하고 있다.

스미노 사토시(2005)는 「思想史的側面에서 본 現代日本武도에 관한 研究」<sup>14)</sup>에서 무사도의 본질에 관한 정의를 시대별 무사도의 발생과 무사도에 대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무사도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현대에 나타나는 무사도의 사상과 영역을 기술하고 있다.

전은경(2007)의 「日本武士道 死生觀에 관한 小考」<sup>15)</sup>는 무사도 사상이 시대와 더불어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에 주목하여 무사도의 사생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 일본과 일본인의 사상과 행동양태를 고찰하고 있다.

송송이(2008)의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타난 일본문화 고찰」<sup>16)</sup>

12) 조형기(2003), 앞의 논문 p.2

13) 김진표·차명환(2003), 「에도(江戸)時代 以前 日本武士道の 思想的 特質」,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14집 제2호, pp.29~36(8쪽).

14) 스미노 사토시(2005), 「思想史的側面에서 본 現代日本武도에 관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전은경(2007), 「日本武士道 死生觀에 관한 小考」,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8집, pp.255~283(29쪽).

16) 송송이(2008),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타난 일본문화 고찰」, 단국대



에서는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내용에 따라 일본 문화를 7개의 범주로 나누어 일본문화를 분석하였다. 미국인의 시선에서 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나 충분히 다양한 사고와 의식을 바탕으로 개국과 근대화를 실현한 일본의 모습을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장식(2009)의 「무사도 뒤집어 보기」<sup>17)</sup>는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에서 과장되고 왜곡된 순사(殉死)·복수(復讐)·할복(割腹·切腹)를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무사도의 실체와 역사·문화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남명학(2012)의 「일본의 무사도란 무엇인가?」<sup>18)</sup>는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에서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에도막부(江戸幕府)에 이르기까지 약 7백 년 동안이나 실권을 잡은 무사들의 가치관에 대해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 야마모토 쓰네토모(山本常朝)의 『하가쿠레(葉隠)』를 중심으로 무사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본 근대화와 무사도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

일본의 발 빠른 근대화사업의 원인을 찾기 위해 최길성(1980)을 비롯해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그만큼 일본의 발전 속도가 대단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대부분은 일본은 급속한 성장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영향력을 바로 무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장식(2009), 「무사도 뒤집어 보기」, 『일본문화연구』 제3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435~453(19쪽).

18) 남명학(2012), 「일본의 무사도란 무엇인가?」, 『선비문화』 제22집, 남명학연구원, pp.99~110(12쪽).

둘째, 무사도의 정의 및 덕목 등에 주목한 연구.

조형기(2003)의 연구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은 무사의 기원, 무사도의 사상 등 전반적으로 무사도란 무엇인가에 주목하며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며 현대 일본인들의 기질 속에 무사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시대흐름에 따라 달라진 무사도에 주목한 연구.

무사의 첫 등장인 헤이안 말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흐름 속 변화되어 온 무사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무사정권은 비록 해체되었지만 무사도라는 그들의 정신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현대사회에 현저히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처럼 일본의 무사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 형성과정 중심에 무사도가 존재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늘날의 일본적 기질의 근원을 무사도로 보고 있는 연구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일본 사회에 어떻게 무사도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다소 미흡하다. 현대 일본인들 속에 무사도의 경향이 보인다는 간접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정확한 근거와 상황을 제시한 논문은 미약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현대사회 속 무사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한다. 먼저 무사·무사도의 기원, 정의 및 사상에 대한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아직 남아 있는 무사도를 일본문화의 대표적 문화장르인 애니메이션 <은혼>을 통해서 밝히려고 한다.

## II. 무사도

### 1. 무사의 등장

#### 가. 무사 · 사무라이의 어원

헤이안시대(平安末期)에서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가 성립되는 동란 시기의 역사서인 지엔(慈円)의 『구칸쇼(愚管抄)』에는 호겐의 난(保元の乱)에 관해서 「호겐 원년(1156년) 7월 2일, 도바원(島羽院)이 없어지고 일본에 반역이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 무사의 세상이 되었다. 호겐 원년(1156년) 7월 2일」이라고 나와 있다.<sup>19)</sup>

武는 兵과 勇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武士·兵士·勇士·武勇 등의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한자가 전해지고 난 뒤부터는 무사라는 말이 쓰여지게 되었으나 원래 이 무사에 해당하는 순수한 일본어로서는 마스라오(ますらを)·모노노후(もののふ)·사부라히(さぶらひ)·츠와모노(つはもの) 등이 쓰여지고 있다.<sup>20)</sup> ‘무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고지키(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만요슈(万葉集)』 등에 수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 여러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지엔(広辞苑)』에 의하면 무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19) 우미하라 순(2011), 윤영기외 2명(역), 『무사도:일본문화론』, 경성대학교 출판부, p.22.

20) 권만혁(1996), 앞의 논문, pp.23~24.

무예를 배우고 군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넓게 가리킨다. 무사의 정의를 무기(武技)를 재능(職能)으로 생활하는 직능민(職能民)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헤이안 말기에 등장해서 에도시대까지 존속한 사회계층을 말한다.<sup>21)</sup>

그리고 『다이시센(大辭泉)』에서는 ‘무예를 닦아 군사에 종사한 사람으로, 무사는 한번 말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신의를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의를 지녔고, 같은 입장에 있는 자는 서로 배려하는 자’라고 정의되어있으며<sup>22)</sup> 『다이시린(大辭林)』에서는 ‘무예를 몸에 익혀 군사에 종사한자, 헤이안 중기 이후에 대두하여 에도시대에는 사농공상(士農工商) 가운데 최상의 계급으로 올라간 자’를 무사 또는 사무라이, 모노노후라고 나타내고 있다.<sup>23)</sup>

#### 나. 시대 변화에 따른 무사관

헤이안시대 10세기에 이르자 군사와 무예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귀족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사무라이’로 불리게 된다. 한편 지방에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된 황족과 중앙귀족의 자식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방에 남아 강력한 세력을 지닌 지방호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축적된 힘으로 고쿠시(国司)가 되어 치안을 담당하고 유미야(弓矢)와 기마를 전문으로 하는 무사로 불리게 된다.<sup>24)</sup>

무사의 등장에 대한 기존 연구의 업적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무사란 헤

21) 사에키 신이치(2011), 김병두(역), 『무사도는 없다』, 리빙북스, p.10.

22) 『다이시센(大辭泉)』, 2006년(3판), 전자판, 小学館.

23) 『다이시린(大辭林)』, 1993년, 제123발간, 三省堂, p.1689.

24) 전은경(2007), 「日本武士道 死生觀에 관한 小考」, 『인문과학연구소』 제18호, p.260.

이안시대 10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일본사회에 등장했다. 귀족사회가 전문적으로 분업화하는 과정에서 무사 또는 무가를 국가의 군사, 경찰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특정 사회 계층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 세력은 그 후에 새로운 군사적 상류계층으로서 각 지방에 널리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강대한 권력으로 정치기능에까지 침범해 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무사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 무사도의 정의 및 특징

### 가. 무사도의 정의

무사도는 말 그대로 ‘무사의 도’를 의미한다. 『다이시센(大辭泉)』은 도(道)란 첫 째로, 사람과 차가 통행하는 곳, 길과 지방공공단체로서의 도(北海道), 율령제에서 기나이(畿内)이외의 제국(諸国)을 대별한 행정구획 도카이도(東海道)·산요도(山陽道) 등과 같이 지정학적 구분, 중국 조선의 지방구획과 통행을 의미하는 길로서의 의미와 같은 유형을 의미한다.<sup>25)</sup> 둘째로, 사람으로서 밟아가야 할 무엇으로서의 무형적인 길. 즉, 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불교의 가르침 도교와 또는 도교의 가르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6)</sup>

‘道’를 검색하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상으로 근본이 되는 뜻, 깊이 깨달은 지경, 기예·무술·방술의 방법이라는 뜻이 나온다.<sup>27)</sup> 한자 ‘무

25) 『다이시센(大辭泉)』, 2006년(3판), 전자판, 小学館

26) 전은경(2007), 앞의 논문, p.261.

27) 『동아 새국어사전』, 2006(4판), 전자판, 두산동아.

사(武士)'와 '도(道)'를 그대로 붙여 해석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사도는 문자 그대로 '무사의 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세세히 풀어서 해석하자면 무사도는 문자 그대로 무인의 도(道), 무사가 본인의 직업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도(道)를 의미한다. 즉, 무사의 규범, 무사계급에 수반되는 의무이다. 도(道)는 시대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역사적 과정 안에서 체계화되어 하나의 체계화된 구체적 사상으로서의 형태를 갖는다. 무사도 마찬가지로 무사의 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계층적 측면과 그 시대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 태도, 문화 사상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무사도』의 저자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란 무사가 지켜야 할 도덕적 원리의 규율이며 평민에게까지는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야마토타마시(大和魂)는 일본의 민족정신을 표현한다.”<sup>29)</sup>고 밝히고 있으며 이덕훈은 “무사도란 무사계급이 지녀야 했던 도덕 및 정신으로 무사들은 충성, 희생, 신의, 염치, 예의, 결백, 꾸밈없음, 검약 등을 중시하였다.”<sup>30)</sup>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지엔(広辞苑)』을 살펴보면 무사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무사 계층에 발달한 도덕 가마쿠라시대부터 발달해서 에도시대에 대성, 봉건 지배체제의 관념적 지주를 이루었다. 충성, 희생, 신의, 염치, 예의, 결백, 소박, 검약, 상무, 명예, 정애 등을 중시한다.<sup>31)</sup>

야마모토 쓰네토모의 『하가쿠레』의 한 구절인 ‘무사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익히는 것’(武士道とはいふは、死ぬ事と見つけたり)은 무사라는 자는 주군을 위해 죽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몰아·헌신에 중점을 둔 무사도를 이야기한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2)</sup>

28) 전은경(2007), 앞의 논문, p.262.

29)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3.

30) 이덕훈(2009), 『일본의 경제발전과 무사도』, 비엔엠북스, p.28.

31) 『고지엔(広辞苑)』, 2006년(5판), 전자판, 岩波書店.

32) 전은경(2007), 앞의 논문, p.262.

일본 문화에서의 무사도의 등장은 일종의 역사적인 역설로 기존의 칼잡이로서의 무사를 떠나 문무겸비와 지배계급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국시대의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찾아온 평화스런 에도시대의 무사들은 급격한 경제발전의 틈에서 소외된 채로 400여 년간 계속된 평화의 시대에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허리에 찬 칼처럼 이상이 드높았다. 빈곤한 생활에서도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고 이를 지탱해 준 것이 기리스테고멘(切捨御免), 묘지(名字·苗字), 다이토(帶刀)였다. 이 세가지는 무사 특유의 권한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절제된 생활을 몸소 실천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것이 바로 무사도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의 무사도 관련 논문이나 여러 권의 서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어떤 책에서는 무사도를 일본 고유의 무사 사상이라고 하며 또 어떤 책에서는 유교의 일본적 변형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일종의 주종관계라고 보기도 하며 주군에게 반한 남자와 남자사이의 관계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 지배계급으로서의 책임감이나 거짓을 배제한 깨끗한 자세라고 칭하기도 하며 적과의 싸움에 당당하게 임하는 윤리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권의 책 속에 그것들을 모두 혼합해서 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나. 무사도의 사상적 특징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sup>33)</sup>를 기준으로 무사도의 사상과 특징을 분류하였다.

---

33) 일본고전연구회에서 번역하고 도서출판 문에서 2010년에 발행된 책이다.

(1) 의(義)

의(義) 또는 의리(義理) 그리고 정의(正義)라고 불리는 무사도의 도덕 중 하나인 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를 말한다. 『무사도』의 저자 니토베 이나조는 의는 무사도에서 가장 엄격한 교훈이다.’라고 말했다. 무사도를 나타내는 여러 사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의를 먼저 내세우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니토베 이나조 뿐만 아니라 에도막부 말기의 존왕양이(尊王攘夷)파의 마키 이즈미(真木和泉)<sup>34)</sup>는 ‘절의(節義)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람 몸에 뼈가 있는 것과 같다. 뼈가 없으면 목이 제대로 몸통 위에 있을 수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발로 설 수도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절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설 수 없다. 절의가 있다면 무례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무사라 일컬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에도시대 중기의 경세가(經世家), 하야시 시헤이(林子平)<sup>35)</sup> 또한 마찬가지로 ‘의는 용기 있게 결단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다. 죽어야 할 때에는 죽고 적을 쳐야 할 때는 치는 것이다.’하였다.<sup>36)</sup>

34) 마키 이즈미(真木和泉) : 1813~1864년, 에도시대말기의 존왕양이 정치사상 운동가. 분카이(文化) 10년 3월 7일 큐슈 구루메(久留米)에서 마키 토시오미(真木 旋臣)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에도 미토(水戸)번 유학 중,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正志齋, 1782-1863)의 영향을 받는다. 존왕양이운동(尊王攘夷運動)를 펴고 가에이(嘉永) 5년 구루메번의 개혁을 목표로 하지만 실패하고 유폐된 몸이 된다. 분규(文久) 2년 막부를 나와 막부 토벌에 동분서주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겐지(元治) 원년 7월21일 천왕산(天王山)에서 자해한다.

35)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 1738~1793년, 에도중기의 경세가. 에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센다이번(仙台藩)에 경제정책등을 진언(進言)하였으며 나가사키(長崎)에서 유학하였다. 에도에서 오오쓰키 겐타쿠(大槻玄沢),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등의 난학자와 교류하여 해외사정에 능통하였다. 해국병담(海国兵談)를 집필할 때 해안방비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삼국통람도설(三国通覽図説)에서는 에조치(蝦夷地) 개척을 설명하였지만 막부의 기휘(忌諱,끼키)에 의해 금고(禁錮)된다. 간세이(寬政) 3인 중 한사람이다.

36)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37.



즉, 저명한 무사들의 말을 요약하자면 무사의 법도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지켜내기 힘든 것, 또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되는 덕목이 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국민의 대중교육에서 종종 등장하는 47인의 무사<sup>37)</sup>는 무사도의 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계략에 빠져 할복한 주군에 대한 신하들의 복수극을 나타내는 이 일화를 곁핥기수준에서만 바라본다면 주군에 대한 단순 복수극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47명의 무사들의 행동은 하야시 시헤이의 말처럼 용기를 수반한 결단력, 즉 ‘의’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의라는 낱말은 정의로운 도리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점차 추상적인 의무의 관념으로 바뀌면서 인간이 사회에서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의리라는 단어 그 자체도 단순 명쾌한 의무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라는 것은 정의로운 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도리는 일본인에게 절대적인 명령이었다.<sup>38)</sup>

## (2) 용기(勇氣)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국제대학원(SAIS)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엘리엇 코언(Elliott A. Cohen)의 저서 『최고사령부』<sup>39)</sup>에

37) 47인의 무사 : 1703년 주군인 아사노 다쿠미노카미 나가노리(淺野内匠頭長矩)의 치욕을 씻기 위해 기라 고즈케노스케 요시나카(吉良上野介義央)를 습격한 구 아코(赤穂)번 무사 47명. 목적을 달성한 후 막부의 명령에 의해 할복하였다.

38) 송송이(2008), 앞의 논문, p.30.

39) 전시(戰時)의 리더십에 관한 책으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간인 지도자와 군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전시의 전략수립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네 명의 위대한 정치가(링컨, 클레망소, 처칠, 벤구리온)가 군 지도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리더십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프랑스 총리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1841~1929),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주역 영국 총리 위스톤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1874~1965), 독립전쟁을 지휘한 이스라엘 총리 벤 구리온(David Ben Gurion, 1886~1973) 이들의 전시(戰時)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엘리엇 코언은 이 네 명의 지도자들의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성공적인 요인으로 용기를 주장하였다.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전시(戰時), 포탄이 휘날리는 전장을 방문하며 부하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들의 진정한 용기가 성공의 요인이라 하였다. 부하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용기라는 단어로 나타낸다면 무사들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와 다소 비슷하다 할 수 있다.

에도시대 미토번의 제2대 번주인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는 “전장에 돌진하여 죽기는 매우 쉽다. 심지어 가장 미천한 자조차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살아야 할 때는 살고, 오직 죽어야 할 때만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다.<sup>40)</sup>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를 인식하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는 용기가 아니다.’ 이 격언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지로 돌진하는 것, 용맹과 동일시 될 확률이 높는데 무사도에서 말하는 용기는 이른바 개죽음이 아닌 진정한 죽음을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두 살이 되면 가신이 부모 대신 밤을 새워 시중을 들고 낮에는 어깨에서 키우며,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원했으며 다섯 여섯 살이 되면 대나무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연습하고 신발을 신고 토끼를 사냥하고 말을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키워야 한다.

위와 같은 문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말 타기와 활

---

40)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43.

쏘기 등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사들은 무예로써 용의 정신을 수련하는 것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용기와 평정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용기의 영적 모습은 고요하고 차분한 심적 상태 즉, 평정심으로 드러난다. 평정은 고요 속의 용기이다. 평정이 정적인 표현인 것에 비해 대담은 동적인 표현이다. 진실로 용감한 자는 언제나 침착하고 결코 놀라지 않는다.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재해 속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는다. 예컨대 임박한 위험 앞에서 시를 지어 읊고 죽음에 직면해서도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 평시와 다름없는 동요되지 않는 그의 필적과 음성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웅대한 마음을 상징한다.”<sup>41)</sup>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곤경이 닥쳐와도 허둥대지 않고 여유를 잃지 않는 마음을 무사도에서는 용기라 말한다.

### (3) 인(仁)

공자의 사상을 존신하는 유교의 기본덕목 중 한 가지인 인은 『논어』에서 공자가 가장 강조한 덕목이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인의 사상이라고 까지 말한다. 공자와 맹자는 인간을 통치하는 자의 최고의 필수조건으로 인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는 대학에서 “군자는 먼저 삼가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이 있으면 이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이에 땅이 있게 되고, 땅이 있으면 이에 재물이 있게 되고, 재물이 있으면 이에 쓰임이 있게 된다.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요, 재물이란 것은 말단이다.”라고 하였다. 맹자는 “불인하면서 나라를 얻는 자는 있으나 불인하면서 천하를 얻는 자는 있는

41)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46.

적이 없다.”고 말했다.<sup>42)</sup>

한국에서는 인을 ‘어질다’고 하며 또 어질다는 어원은 ‘얼이 질다’에서 온 말로서 심성의 착함, 행위의 아름다움을 뜻한다. 그러나 무사도에서의 인은 조금 다르다.

니토베 이나조는 중국의 사상가 공자와 맹자의 말을 빌려 무사도에서 용기란 왕자의 덕, 다이묘(大名)의 덕으로 보며 인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주군과 다이묘들의 주종관계의 봉건제도하의 정치는 권력이란 힘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공자는 “인(仁)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이란 인간다움이다.”라고 하였다. 공자의 인은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분별하는 사랑을 의미한다.<sup>43)</sup> 사욕에 가리고 기질에 구애되어 이따금 정신이 혼미해져 망각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인의 본성은 결코 마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한 심정인 것이다.

조선 중기 중종 때의 문신 이언적(李彦迪)은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 한가정이 인하면 나라가 흥인(興仁)하고, 위에 있는 자가 인을 좋아하는데 아래에 있는 자가 의를 좋아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大學), 인하면서 부모를 버리는 일은 없고 의하면서 임금을 버리는 일은 없다.(孟子) 인은 마음의 덕이요, 가정의 보배요, 위정의 근본이요, 만물과 일체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먼저 인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sup>44)</sup>

즉,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 하는 자,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무사라는

42)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50.

43) 강동호(2013), 『Basic고교생을 위한 윤리 용어사전』, 전자판, 신원문화사.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1),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자판, 동방미디어.

신분을 가진 자, 그들은 인의 힘을 빌려 사리사욕에 빠지기 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정한 무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 (4) 예의(禮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무사들의 결투 신에서 우리는 결투 전에 자신의 신분이나 직책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적이 있다. 소중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들은 칼을 꺼내들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일본인의 친절함,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보고 일본인의 고유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의 친절함, 서비스적인 마인드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과잉친절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서비스적인 마인드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베푸는 마음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생활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왔다. 타인에게 인사를 하는 법, 식사예절, 걷는 방법, 차를 끓이는 법 등은 학문으로까지 발달되었고 이러한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 그들은 소위 말하는 모범생적인 사람, 예의바른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들의 지나친 예의바른 행동 때문으로 인해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들은 예의를 지킨다. 니토베 이나조는 예의를 존중하지만 모든 덕의 최고의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며 예(禮)를 분석하다 보면 높은 차원에 있는 도덕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무사특유의 덕으로 칭송 받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였다.<sup>45)</sup>

---

45)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61.

무사도의 예의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주군에 대한 막연한 예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없어지면서 에도시대의 정치이념으로 받아들여진 유학을 통해서 예의를 몸에 익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의 학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주군에 대한 막연한 예의 혹은 충의라고 불릴 수도 있는 무사들의 행동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군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난 것이며 더욱 깊이 있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따라 무사특유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5) 진실(眞實)과 성실(誠實)

한국의 고사성어에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란 말이 있다. 자고로 남자란 약속(約束)한 한 마디의 말을 중(重)히 여겨야 한다는 뜻으로, 약속(約束)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말이 일본에도 있다. ‘무사의 일언(一言)’, 바로 사무라이의 말을 뜻하는데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의 세계에서 거짓말과 핑계는 모두 비겁한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무사는 사회적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농민이나 상인보다 ‘성실’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았다고 하였다. ‘무사의 일언’이라는 이 한마디로 비록 증거를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사의 말은 꼭 지켜질 것이며 그 말에는 위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 진실성이 충분히 보증되었다고 서민들은 믿었다.<sup>46)</sup>

무사의 사상적 특징의 상하구조상에서 진실과 성실은 예의의 밑에 있지만 예의를 받쳐주는 한 부분으로써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이유를 진정한 사무라이는 자신이 내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성실

---

46)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69.

과 진실된 마음가짐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무사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뱉은 말은 무조건 또는 어쩔 수 없이 실행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서민들 사이에서도 무사에게 하는 말에는 일체의 거짓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고하겠나이까?’ 하는 대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하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에는 일언의 거짓도 없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무사에게 하는 말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이 말해야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당연히 서민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무사라는 고귀한 신분에 자신들이 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더 컸을 것이다.

니토베 이나조는 일본에서는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는 적극적인 계율이 없어 거짓말을 죄로 다스릴 수 없었지만 거짓을 약점으로 배척당하고 불명예라고 비난받았으며 확실히 진실, 성실이라는 관념은 명예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7)</sup>

#### (6) 명예(名譽)와 충의(忠義)

국어사전에서는 명예를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공적을 기리고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주는 호칭”을 말한다.<sup>48)</sup> 여기서 말하는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에는 도덕적 존엄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니토베 이나조는 명예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신분에 수반되는 의무와

47)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75.

48) 『동아 새국어사전』, 2006(4판), 전자판, 두산동아.

특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교육을 받은 무사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sup>49)</sup> 맹자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밭가벗고 나를 모욕하려 해도 나를 어찌하겠는가, 당신이 난폭한 짓을 하더라도 내 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로서 받는 교육에 따라 명예라는 것은 실추 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에도 전기시대의 유학자 오가와 릿쇼(小河立所)<sup>50)</sup>는 “남으로부터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욕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무를 좀 더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아닌지를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에도시대 초기의 양명학자 구마자와 반잔(熊沢蕃山)<sup>51)</sup>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책망하더라도 자신은 책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더라도 자신은 화내지 않는다. 화와 욕심을 버리고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sup>52)</sup>

무사의 명예하면 떠오르는 일화로 오사카의 겨울 전투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아들 도쿠가와 요리노부(徳川頼宣)가 전장에 참여하였다. 그는 선봉대에 서고 싶다고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린 아들의 목숨을 쉽게 잃고 싶지 않았기에 후진에 배치하였다. 속상해 하는 요리노부에게 나이든 가신이 “오늘 선봉대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상해할 필요는

49)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76.

50) 오가와 릿쇼(小河立所) : 1649~1696 교토출신의 에도전기의 유학자. 15세때 이토 진사이(伊藤仁斎) 문하에 입문하여 교토에서 사숙을 열었다. 의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저서로는 『論語国字解』, 『学論』 등이 있다.

51) 구마자와 반잔(熊沢蕃山) : 1619~1691 일본의 철학자로 일본 양명학의 대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23세때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도주 문하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았다. 27세 이후에는 오카야마(岡由)의 번주(藩主)인 이케다 미츠오사(池田光政)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번정(蕃政)에 참여하였다. 그는 가난한 자를 구휼하고 음란한 사원을 폐지시켰으며,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등 정치적 업적도 쌓았다. 후에 그는 막부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탓으로 미움을 사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만년에는 궁벽한 지역에 연금되어 있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52)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81.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몇 번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요리노부는 그 자신에게 “나에게 13살이라는 시절이 또 찾아올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에서 요리노부는 13살이라는 어린나이에도 목숨보다는 명예와 명성을 얻길 원했던 것이다. 이처럼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하는 무사의 덕목 중 주군에 대한 충의가 있다.

주군에 대한 충의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로 ‘47인의 무사’가 있다. 앞서 무사도의 ‘의’를 나타내는 일화라고 간략하게 소개했다. 47인의 무사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703년 에도시대에 아코성의 성주 아사노 나가노리는 산킨코타이(参勤交代)제도에 따라 자신의 성을 떠나 쇼군(將軍)이 사는 에도에 기거하고 있었다. 아사노는 막부고관인 기라 요시나카의 지휘 아래서 일하고 있었으나 기라와의 의견 충돌로 인한 싸움 끝에 기라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법도에 따라 성안에서 칼을 뽑은 무사는 자결하라는 엄명을 받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다. 에도시대는 무사들의 과잉된 전투정신을 억누르기 위해 성 안에서 칼을 뽑는 것을 금하고 있었고, 칼을 뽑을 경우 할복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良雄)를 비롯한 아사노의 부하들은 주군을 잃고 일자리도 없는 낭인이 되었다. 하지만 주군의 복수를 맹세한 뒤 때를 기다리며 흩어져 살며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린다. 구라노스케는 주색에 빠진 폐인처럼 생활하여 감시의 눈을 피했고, 다른 부하들도 역경을 견디면서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약속했던 날 주군을 죽게 한 기라의 목을 베어 주군의 무덤 앞에 바치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47인의 무사들 역시 막부의 할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모두 할복하였다.

주군에 대한 충의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한 가지 더 있다.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는 질투에 사로잡힌 적의 참언 때문에 수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 그의 어린 아들을 옛 가신 다케베 겐조(武部源藏)에게 맡겼다. 하지만 곧 그 사실이 발각되어 정해진 날까지 아이의 목을 베어 보내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명령을 받은 겐조가 강구한 차선책으로 주군의 아들을 대신할 적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아이들을 주위 깊게 살펴보았지만 주군의 옛 아들과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 딱 한명 자신의 아들을 빼고는 말이다. 약속된 그날 어린주군의 머리를 확인하고 받아가기 위해 검시관이 찾아왔다. 검시관은 그의 앞에 놓인 처참한 모습의 목을 가까이 끌어 당겨 조용히 이곳저곳을 살핀 후 돌아갔다. 임무를 마친 겐조는 집으로 돌아가 대문을 열자마자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뻐하시게 부인! 내 아들은 제 목을 다했지요.” 라고 말이다.

주군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무사의 주군에 대한 충이다.<sup>53)</sup> 여기서 일본인들의 충의와 의리는 주군과 신하 사이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다. 주군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주군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이 하락되고 처자식을 외곽에 팔아넘기는 등 무사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빈곤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들에게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만의 충이라고 할 수 있다. 겐조 또한 무사의 신분으로서 충을 선택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부인 또한 아들을 격려하여 주군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하였다. 무사의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들도 주저 없이 충에 따른 것이다. 무사는 생명을 주군을 모실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은 명예에 두었다. 따라서 무사의 교육 및 모든 교훈은 이것들을 기본으로 행해졌던 것이다.<sup>54)</sup>

---

53) 조형기(2002), 앞의 논문, p.31.

54)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93.

(7) 극기(克己)

무사들에게 있어 극기의 영향력을 하나 들자면, 무사들은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들어내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쁨과 분노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을 강한 성격으로 나타내주는 원칙으로 여기며 자연스러운 감정을 강제로 억제시켰다. 동작이 침착하고 정신이 평온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sup>55)</sup>

극기란 『논어』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로 욕망과 정념(情念)을 누르고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는 일을 말한다. 즉, 자기의 욕망이나 충동, 감정 따위를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 그 자체가 이상이 되는 소극적인 입장을 말한다.<sup>56)</sup> 전자는 용기·정진(精進)과 같은 덕이 되고, 후자는 절제(節制)·평정(平靜)과 같은 덕과 연결된다.

일본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본능을 억제하며 억누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청일전쟁 당시 어느 연대의 출전을 위해 병사들을 배웅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두 모였다. 한 미국인은 군중이 병사들과 헤어지면서 크게 소리 지르며 감정을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수천 명의 군중은 조용히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여 정중하게 이별을 고하였으며 손수건을 흔드는 사람도 없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없이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가끔씩 흐느낌만 들릴 뿐이었다.<sup>57)</sup>

니토베 이나조가 『무사도』에서 청일전쟁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일본인 특유의 성격 즉, 무사도의 극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55) 송승이(2008), 앞의 논문, p.29.

56) 『동아 새국어사전』, 2006(4판), 전자판, 두산동아.

57)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101.

실제 일본인은 마음이 약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을 때 언제나 억지웃음을 짓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의 억지웃음의 습관은 여경에 처해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도탄에 빠졌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웃음은 슬픔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극기의 성격을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일 것이다. 58)

니토베 이나조에 의해 분류된 무사도의 7가지 사상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무사도의 7가지 사상은 무사의 등장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격분한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오늘날의 무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온 무사도에 대해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날 무사도가 정착되어 왔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3. 시대별 무사도의 특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의 대부분은 에도시대 이후 유교의 도입으로 유학자들에 의해 이론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사의 등장을 헤이안시대로 알고 있다. 헤이안시대의 무사도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의 사이에는 많은 거리감이 존재한다. 여기서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된 무사도에 대해 알아보며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가. 헤이안(平安) · 가마쿠라(鎌倉)시대

---

58) 니토베 이나조(2010), 위의 책, p.104.

헤이안시대는 일본 사회사로는 고대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간무 천황이 784년에 수도 헤이조코(平城京)를 폐하고 야마시로쿠니(山城国)의 나가오카(長岡)로 천도한 후 다시 약 10년만에 나가오카를 떠나 794년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했다. 이때부터 헤이안시대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무사가 사회계급으로서 본격적으로 출연하여 처음으로 ‘무사의도’를 만들어간 시기를 헤이안시대로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헤이안시대 말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sup>59)</sup> 율령제도가 붕괴하고 전국에 장원(莊園)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토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기를 들고 무장그룹을 조직한다. 이것이 무사단의 시작이다. 무사단은 지방의 지도자 즉,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황족과 귀족을 지도자로 받들어 거대한 무사단을 형성하고 토지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다. 헤이안시대의 무사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일화가 하나있다.

고지단(古事談)<sup>60)</sup>과 짓킨쇼(十訓抄)<sup>61)</sup>에 따르면 미나모토노 요시이에(源義家)의 동생 요시미츠(義光)는 시라카와법황(白河法皇)의 신하 후지와라노 아키스에(藤原季)와 한 장원의 영유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였다. 합법적으로는 후지와라노 아키스에의 소유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요시미츠는 ‘一所懸命의 땅’이라며 목숨을 걸고 지킨 땅이라면서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았

59) 조형기(2002), 앞의 논문, p.15.

60) 가마쿠라시대 초기의 설화집. 무라카미 겐지(村上源氏) 출신인 형부경(刑部卿) 미나모토노 아키카네(源顯兼, 1160~1215)가 편집했다. 1212~1215 사이에 만들어졌다. 나라시대 이후 헤이안중기에 이르기까지 462개 설화를 모았다. 王道后宮·臣節·僧行·勇士·神社仏寺·亭宅諸道の 6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마다 연대순으로 이야기를 배열했다. 문체는 마나(真字)를 주로 하고 가나(仮名)를 섞은 글도 있다.

61) 작자에 대해서는 이설도 있으나 로쿠하라 지로 자에몬뉴도(六波羅二臘左衛門入道)설이 유력하다. 설화를 인간 생활의 교훈으로 간주하고 도덕 교육의 재료로 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년들에게 선을 권하고 악을 경계하는 교훈, 계몽의 의도에 따라 겐초(建長) 4년(1252)에 정리되었다. 10개의 덕목을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약 280개 설화를 수록하고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덕목을 강설하는 것보다 이야기의 재미가 주가 되고 있다.

다. 만약 그 땅을 잃는다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였다. 결국 법황은 합법성을 가진 아키스에를 물리치고 비합법적인 요시미츠의 주장을 인정하여 국면을 수습하였다. 이는 결국 무사도라는 것이 근원적으로는 생활을 지탱하는 소령을 확보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며 보장하는 인간관계로서 성립하였음을 말한다.<sup>62)</sup>

즉, 헤이안시대의 무사도는 무사들 사이의 도덕이나 윤리, 습관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一所懸命(一生懸命)’로 자신의 것을 지키는 태도, 목숨을 거는 무사의 모습을 무사의 도, 한마디로 무사도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어의 ‘열심히’라는 용어의 어원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가마쿠라시대는 무사가 주도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가의 변견으로 살아온 무사가 드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이라는 힘으로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힘을 가진 자신들은 왜 공가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할까? 하는 의문과 불만에서 무사들의 반항이 시작된 것이다.

가마쿠라시대의 무사사회는 막부라는 군사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관청이 설치됨으로 헤이안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어졌다. 이 새로운 규칙이 무사의 도덕적 규범인 무사도로 이어져 가마쿠라시대의 무사도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sup>63)</sup> 또한 무사들의 분별없는 행동과 경고 없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1232년 호조 야스토키(北条泰時)에 의해 무사 최초 법률인 고세이바이시키모꾸(御成敗式目)가 만들어 졌다. 무사는 장군으로부터 토지를 받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며 농민을 고용해 농업을 하였다. 그리고 전란이 일어났을 때는 장군 곁으로 달려가 힘이 되었

62) 조형기(2002), 위의 논문, p.15.

63) 조형기(2002), 위의 논문, p.16.

다.

토지를 지배하는 자 그리고 그 지배자를 따르는 자로 구성된 이 시대는 한마디로 주종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마쿠라시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주종관계는 장군이 은(恩)으로써 무사에서 토지를 주고 무사는 장군을 위해 일하고 은에 보답하였다.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이어져 왔고 이를 봉건적 주종제라고 한다.

#### 나. 무로마치(室町) · 센고쿠(戰國)시대

가마쿠라막부를 타도한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의 친정의 시작으로 공가 정권이 부활했다. 고다이고천황의 가마쿠라막부 타도에 공헌한 무사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자 고묘천황(光明天皇)을 옹립해 새로운 막부(북조)를 만들었다. 쫓겨난 고다이고천황은 남쪽에 새로운 조정을 만들었다. 이리하여 조정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 남북조라는 이상한 시대가 도래했다.

전란은 60년간 계속되었고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에 의해 드디어 종식되었다. 그에 의해 교토의 무로마치에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가 수립되었다. 그 후 천황을 정점으로 한 귀족정권은 막을 내리고 막부의 장군에 의해 전 일본이 지배당하게 되었으며 천황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막부는 농민과 지방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힘 있는 무사들을 슈고(守護)로 임명해 장원을 관리하고 더불어 지방 관리를 통제하게 했다. 슈고의 지위는 세습되었고, 영지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슈고다이묘(守護大名)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통제방식에 의해 60년간의 전란 이후에도 무사들은 가마쿠라시대의 은(恩)과 봉공(奉公)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측면과 ‘세습’이라는 새로운

규칙의 생성으로 싫든 좋든 주군에 대한 충이라는 사상이 조금씩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측면과 주군에 대한 헌신적 도덕이라는 두 가지 사상이 무로마치시대에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카가 요시미즈의 남북조 통일에 의해 서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평화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무로마치막부는 1573년에 붕괴하기까지 약 250년간 15명의 쇼군이 출현했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남조의 세력에 의해 몇 번이나 교토를 빼앗기거나 명나라와의 무역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는 일, 건강악화로 인한 5대 쇼군 요시카즈(義量)의 요절, 귀족과 다이묘와의 마찰로 인해 암살당한 6대 쇼군 요시노리(義教) 등 계속되는 혼란으로 막부정치는 안정되지 못했다. 결국 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대규모의 전란으로 발전한다. 쇼군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된 오닌의 난(応仁の乱) 이후 약 100년동안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오닌의 난 이후 중앙집권의 권력과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도 영주와 슈고들은 계속해서 억압과 착취로 농민들을 괴롭혔다. 우리나라의 ‘길 아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라는 속담처럼 온순한 그들도 중앙관리의 계속되는 부패로 인해 참을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센 무사들의 등장에 의해 주군의 추방, 지방영주들의 중앙관리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등 전국구로 하극상이 퍼져나갔다. 즉, 아래가 위를 꺾어 누르는 하극상이라는 풍조가 생겨나고 전국시대로 돌입했다.

무로마치시대와 전국시대의 무사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국시대의 하극상이 출현하였고 실력만 있으면 권위나 질서, 또 자랑할 만한 가문은 이미 무사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었다.<sup>64)</sup>



전국시대의 무사들은 가문이나 신분의 제약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세계로 혼란과 암흑 그 자체였다. 하극상과 모반이 전국에서 난무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도 모르는 무법천지였다. 약육강식 정글이었다. 한마디로 불신시대였다.

가마쿠라막부 때 생성된 주종관계가 여기서 빛을 발한다. 영주는 무사의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이 필요했고 무사는 가족의 안전과 번영이 필요했다. 그들은 더 강력한 주종관계를 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주군의 패망은 바로 무사 그 자신의 멸망이다. 이것은 또한 무사 가족이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군이 번창하면 자신도 번영한다. 주군이 이웃 영주 공략에 성공하면 할당받는 영지가 커지고 수하에 있는 군사와 하인이 많아지면서 생활이 윤택해진다. 바로 무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자신이 죽더라도 가족은 주군이 책임진다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으로 생존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굳건한 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주군을 얻기 위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믿음직한 부하의 삶을 살아야 했다. 가식으로 포장되었던 충이 생존과 공동체 의식 속에서 주군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라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였다.

## 다. 에도(江戸)시대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1603년 고요제이천황(後陽成天皇)의 명을 받아 세이이타이쇼군(征夷大將軍) 즉, 쇼군이 되었고, 전국의 다이묘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에도막부(江戸幕府)를 열었다. 이로써 도쿠가와 이에야

---

64) 조형기(2002), 앞의 논문, p.17.

스는 공식적으로 일본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임명되어 막부를 개설한 후부터 15대 쇼군 요시노부(慶喜)가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 1867년까지의 시대를 근대 또는 에도시대라 보며 막부의 설립자의 성을 따서 도쿠가와시대라고도 한다. 여러 용어로 불리지만 본고에서는 명료하게 에도시대라고 통일하겠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는 무사들에게 있어 혁명 같은 존재였다. 각 지방의 무사들의 힘이 모이지 않도록 수도 주변으로 다이묘를 배치하고 그 이 외에도 잇코쿠이치조우레이(一國一城令)<sup>65</sup>,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sup>66</sup>, 산킨코타이(參勤交代)<sup>67</sup>, 후신야쿠(普請役)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싸움만을 일삼아 온 무사의 뿌리 그 자체가 흔들리게 되었다. 즉, 전투의 수행이 사회 구조적으로 사라짐으로써 이제까지 전투의 전문가로서 살아온 무사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더 이상 느끼기 어려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무사의 계급은 소멸되기보다도 더욱 관념적 사상을 통해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었다. 에도시대에 많은 군학자들이 나타나 무사도가 하나의 사상으로 고도의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위와 같은 배경이다.<sup>68</sup>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제패한 뒤 무사들의 강력한 힘 즉, 칼을 무

65) 잇코쿠이치조우레이(一國一城令) : 잇코쿠이치조우레이는 막부에 대항할 수 있는 다이묘들의 군사적 거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각지의 성을 거점으로 다이묘에게 저항하려는 무사세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다이묘의 권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66) 부케쇼핫토(武家諸法度) : 일본의 에도막부가 1615년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3개 조항의 법령. 다이묘의 품행, 반역·살인자의 추방, 성곽 수리에 대한 보고, 다른 다이묘와 도당(徒党)을 짓는 일의 금지, 영지를 다스리는 다이묘의 정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67) 산킨코타이(參勤交代) : 에도 시대에 바쿠후가 행한 다이묘 통제책으로, 다이묘들을 1년 걸러 에도에 출사(出仕)시킨 제도. 그들의 처자는 인질로 에도에 거주시켰다.

68) 조형기(2002), 앞의 논문, p.20.

장해지하기 위해 들여온 유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헤이안, 가마쿠라, 무로마치, 전국시대의 무사도와는 다른 개념의 사상이 생성되었다. 앞의 네 개의 시대는 무사들에게 목숨과 연결시킨 전쟁 정신, 삶의 원동력이 되어 버린 싸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신을 강요했지만 에도시대의 무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로 전략하면서 하극상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유교라는 종교를 통해 새로운 무사도를 고취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에도시대의 무사도는 싸움터에서 발생한 주군과 가신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뜨거운 감정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개입이 자제된 냉정한 의리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특색을 가진다.<sup>69)</sup> 전국시대의 주군을 위해 헌신적으로 감정이입했던 무사들의 충이 에도시대로 오면서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하다해서 무사들의 충에 대한 깊이가 결코 얕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 똑같이 목숨을 내 걸고 지키는 주군에 대한 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충이라는 사상이 시대의 변화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시대와는 또 다르게 변했다고 보면 된다.

이 시대의 무사도는 무사의 생활이나 사상, 정신에 무사도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무사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동한 인위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시선도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사도라는 개념 대부분이 에도시대에서 흘러나왔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초장기 무사도의 정신을 받아들여 온 ‘무사’도 분명 존재했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

69) 조형기(2002), 위의 논문, p.20.

## 라. 메이지(明治) · 다이쇼(大正) · 쇼와(昭和)시대

도쿠가와가(家)의 안정적인 정치 하에 일본은 250년간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 평화로운 나날에는 외국과의 교류의 제한도 한 몫을 했다. 일본인들은 세계의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때타지 않는 순수한 존재였고 일본이 세계의 전부라는 착각을 주었다. 그러던 차에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용의 모습을 가진 검은 증기선이 에도만 우라가항(浦賀港)에 나타났다. 난생처음 보는 증기선에 얼이 빠진 일본인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였다. 막부는 쇠국을 이유로 외국선의 방문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그들의 끈질기고 강경한 태도에 1853년, 쇠국 215년 만에 개국하였다. 일본의 개국은 겉으로 보기에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한 증기선, 무력함대의 모습은 일본인들을 겁주기에 그만이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굴욕에 무사들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국내에서 순수하게 배양되어온 일본인의 몸속에서 맹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침입한 이물질에 배척하는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듯 존왕양이 운동이 맹렬하게 끓어올랐고 응급조치에 실패한 막부<sup>70)</sup> 외국선 침입의 대한 대책과 더불어 존왕양이 정신을 가진 무사들과 대치까지 해야만 했다.

이때부터 무사들 중에서도 주군에 대한 충성을 천황에게로 옮겨가며 천황을 지지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천황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변모하는 시초가 된 것이다. 무사도는 개국을 시작으로 막부의 멸망, 중앙집권국가의 건설 등 국가체제의 변화에 따라 무사는 이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가 되었다. 정부는 근대화정책과 부국강병을 앞세워 중앙집권

---

70) 가와이 아츠시(2005), 원지역(역),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랜덤하우스코리아, p.224.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유력무사 신분을 없애려고 하였고 결국 정부는 무사의 특권을 하나하나 없애면서 중앙집권국가로 한발 내딛을 수 있었다.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시작은 좋았으나 급격한 서구화열장으로 인해 잘 맞물려 굴러가던 톱니바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경제혼란과 정치부패로 수차례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의 진압을 위해 군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군국주의체제로 또 다시 변모하였다.

이때부터 무사도는 군국주의의 대두와 함께 더욱 강화되어 국가적 무사도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주군과 자신의 관계는 국민과 천황으로 바뀌고 무사도는 국민도덕의 주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sup>71)</sup> 메이지정부가 천황제 국가 확립의 일환으로서 메이지 15년(1882년)에 발표한 『軍人勅諭』가 있다.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 무의(武義)의 본의를 나타내고 군인의 기본적 자세를 설명했다고 하는 점에서 메이지의 무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후에 일본군대의 정신교육의 기초가 되었다.<sup>72)</sup> 이러한 점은 나라를 위해 천황을 위해서 스스로 폭탄이 된 가미카제(神風)특공대의 일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의 무사도는 천황제 아래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등에 의해 주창되어 결국에는 충효의 ‘의’정신을 선양하고 전 국민을 전투적 무사로 만들어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부추기는 무사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73)</sup>

시대별에 따른 무사도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헤이안시대의 무사도는 한마디로 ‘一生懸命’로 나타낼 수 있다. 자기 땅의 소유권을 위해 목숨 걸고 지키는 무사의 모습이었고 가마쿠라시대의 무

71) 조형기(2003), 앞의 논문, p.22.

72) 조형기(2003), 위의 논문, p.22.

73) 윤영기(2001), 앞의 논문, p.35.

사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군 밑에 들어가 은을 주고받는 ‘기브앤 테이크’식의 시대였다.

무로마치와 전국시대의 무사도는 전란이 난무했던 혼돈 그 자체의 시대였고 하극상의 시작이었다. 주군으로서 요구되는 사항이 그 이전의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시대보다 더 많고 어려워졌다. 꾸미지 않고 진실 되게 자신을 드러내야 하며 진실 된 모습이 대장부이어야만 한다. 또 무사들이 바라는 소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믿음직스럽고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만약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하극상으로 이어지는 시대였다.

에도시대의 무사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등장으로 전쟁터를 잃어버린 무사들의 존재를 없애버리기는 보다는 상징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여기서 니토베 이나조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을 고귀한 존재 즉, 노블레스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에서 엿볼 수 있는 사상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사도라는 개념이 바로 에도시대의 무사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시대(明治時代), 다이쇼시대(大正時代), 쇼와시대(昭和時代)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라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대의 흐름상 무사라는 신분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 이어져온 무사들의 ‘心’은 비록 그 대상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무사도의 7가지 사상과 시대별 무사도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장에서 말했듯이 무사도의 7가지 사상은 처음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무사도에 따라 사상도 함께 변화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일본인들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무사도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 분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 Ⅲ. 애니메이션과 무사도

#### 1.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특징

국어사전에는 “애니메이션을 만화나 인형을 이용하여 그것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촬영한 영화, 또는 그 영화를 만드는 기술”<sup>74)</sup>이라 하였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작’, 활기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라틴어 anima(영혼)에서 유래하므로 어원적으로는 ‘무생물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대한 보편적이면서 권위 있는 정의는 국제 애니메이션 필름협회(ASIFA : Association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의 총회에서 발표된 “애니메이션 예술은 실사영화의 제작방식과는 다른 기술과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들을 창출하는 작업”<sup>75)</sup>이라고 규정하였다.

#### 2. 일본의 애니메이션

아니메(アニメ) 또는 재패니메이션(Japanimation)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일컫는다. 주로 기존에 연재되는 동명의 인기 있는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되며, 장면의 대부분은 셀 애니메이션<sup>76)</sup> 방식이 사용된다. 아니메는 원래

74) “애니메이션” (네이버 국어사전-국립국어원) <http://krdic.naver.com>

75) 박인하(1999),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메가 보고 싶다』, 교보문고, p.15.

76) 종이에 그린 그림을 투명한 플라스틱(합성수지)인 셀룰로이드에 그대로 옮긴

일본에서 애니메이션(Animation)을 지칭하는 약자였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 중 60% 이상 제작될 정도로 거대해진 오늘날에 ‘아니메’는 각국의 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널리 쓰여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드는 한국과 달리 특정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고 만들어져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방영된다.

한국에서는 1956년 박카스나 진로소주 광고로 출발하여 만화가 신동우의 의적 홍길동에서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가 방영되었다. 그 이후로 손오공, 황금박쥐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였으나 일본 애니메이션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판을 들어왔다. 그러나 요 근래 영어 표현의 web(웹)과 cartoon(만화)을 합성한 말로 ‘웹툰(webtoon)’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만화시장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 일례로 네이버 웹툰 ‘혈액형에 관한 간단한 고찰’(이하 혈.관.고)가 웹툰 사상 처음으로 2014년 4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시리즈로 일본에서 방영된다.<sup>77)</sup>

이처럼 일본은 본국의 애니메이션 이 외에도 한국의 웹툰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을 무한대로 섭렵하고 있다. 한국사람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에 어느 정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타국의 문화라 생각하지 않고 자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꽤 높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일본인의 의식 고찰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

뒤, 그 뒷면에 채색을 한 다음 배경 위에 놓고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말한다.

77) “한국 웹툰 혈관고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 <경인일보> 2013년 03월 11일 월요일 제17면.



### 3. 일본 애니메이션 <은혼(銀魂)><sup>78)</sup>

《은혼(銀魂)》은 소라치 히데아키(空知英秋)의 작품으로 『주간 소년 점프(週刊少年ジャンプ)』<sup>79)</sup>에 2004년부터 연재하였으며 단행본은 2014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일본에서 53권까지 간행되었고 우리나라에는 53권까지(2014년 6월 25일 기준) 출간되었다. 《은혼》은 작가의 첫 연재 작품으로, SF 시대극 형식을 취한 인정코미디 만화이다.

횟수 계산은 ‘제○화’(第○話)로 구분하며 『주간 소년 점프』에는 486화까지 실려 있다. 각 화의 부제에는 만화의 본편 내용을 의식한 교훈 또는 작가의 의문, 속담 등이 들어있다. 주인공이 주위 인물들과 벌이는 난장판 개그가 스토리의 기본 노선이지만, 감동을 자아내는 내용과 칼싸움, 전쟁 등 심각한 내용으로 전개 되는 일도 있다. 또 주인공 이외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거나 주인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에피소드도 많다. 독특하고 정교하며 장대하면서도 템포 좋은 대사 표현이 특징으로 매니악하고 과도한 패러디, 거침없는 음담패설, 각 업계의 내부 뒷이야기를 포함한 풍자나 작품에 대한 자학 등을 개그 소재로 삼고 있다. 시대 배경은 에도막부 말기로 그 시대 중심의 역사상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다수 등장한다.<sup>80)</sup>

단행본 《은혼》은 2013년 5월 누계 상 4400만 부 이상이 발행되었으며

78) 단행본과 애니메이션의 구분을 위해서 단행본은 《은혼(銀魂)》,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은 <은혼>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79) 1968년에 고단샤(講談社)의 『주간 소년 매거진(刊少年マガジン)』, 쇼가쿠칸(小學館)의 『주간 소년 선데이(週刊少年サンデー)』와 경쟁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주 독자층은 청소년으로 연재작들은 주로 액션과 모험을 소재로 하며,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재 매주 300만부 내외를 발행하고 있으나 전성기였던 1990년대에는 600만부 이상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단행본은 『점프 코믹스』라는 레이블을 달고 발행된다.

80) “은혼”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TV 애니메이션 <은혼>이 텔레비도쿄(テレビ東京)에서 2006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방송되었다. 2010년 4월 24일에는 극장판 <극장판 은혼 신역홍앵편(劇場版 銀魂 新訳紅桜篇)>이 개봉되었으며 2011년 4월 4일부터 2012년 3월 26일에 걸쳐 TV애니메이션 제2기인 <은혼'(銀魂')>이 방송되었고 약 반년간의 휴식을 거쳐 2012년 10월 4일에 방송이 재개되었다. 그리고 2013년 3월 28일 제265화를 마지막으로 다시 휴식기에 들어갔다. 2013년 7월 6일에는 극장판 제2탄인 <극장판 은혼 완결편 요로즈야여 영원하라(劇場版 銀魂 完結編 万事屋よ永遠なれ)>가 개봉되었다.<sup>81)</sup>

애니메이션 <은혼>은 제265화를 마지막으로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많은 팬들이 애니메이션 재개를 응원하고 있으나 49권 작가의 글에서 '이번 극장판을 마지막 폭죽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렸다.'고 밝혔다. 원래부터 애니메이션분야에서 작가 소라치 히데아키는 노터치 상태임을 밝혀둔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의 활동은 작가의 몫이 아니며 제작사의 몫으로 언제 화면에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은혼》은 단행본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게임, 드라마 CD, 소설 등에서 빛을 발하는 테마의 하나로 그에 걸맞게 다양하게 생산, 소비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혼》을 시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은혼>에서 무사도와 현대일본사회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81) “銀魂：あいてれ”(テレビ東京) <http://www.tv-tokyo.co.jp/anime/gintama>

## 4. <은혼> 작가소개 및 줄거리

### 가. 작가 소개

소라치 히데아키(1979년 5월 25일~)는 일본의 남성 만화가로 홋카이도(北海道) 출신이다. 현재 슈에이샤(集英社)의 『주간 소년 점프』에서 《은혼》이란 작품으로 연재중이다. 2004년 《은혼》을 발표할 당시 출판사에서는 그다지 개성 없는 그림체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로 불리고 있는 『주간 소년 점프』 안에서 얼마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제11화부터 인기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단행본 1권이 발매일에 매진되기 까지 했다. 그 후 《은혼》이 애니메이션으로 첫 방송이 되는 등 작가의 독특한 개그 센스가 인정받고 캐릭터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주간 소년 점프』의 상위권이자 인기작가 중 한명이 되었다.<sup>82)</sup>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감독의 <천공의 성 라퓨타(天空の城ラピュタ)>를 보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 ‘무언가 허전하다.’, ‘차라리 시청하는 사람이 아닌 만드는 사람이 되자.’ 라고 생각한 것이 만화가가 되기로 한 최초의 결심이었다.

소라치 히데아키를 인기 만화가로 만들어 준 작품 《은혼》은 ‘신센구미(新選組) 붐에 편승해라.’라는 담당 기자의 한 마디로 결정되었다. 당시 2004년에 NHK대하드라마로 <신센구미>가 방영되었으며 인기그룹 SMAP의 멤버 카토리 싱고(香取慎吾)가 주인공이자 신세구미의 대장 곤도 이사미(近藤勇) 역을 맡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

82) “은혼”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나. <은혼> 줄거리

시대배경은 에도막부 말기. 별안간 천인(天人)이라고 부르는 외계인들의 습격으로 지구인과 천인 사이에 20여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된다. 20년간의 긴 전쟁에 대다수의 무사가 천인과의 전쟁에 참가하게 된다. 하지만 천인의 막강한 힘에 무릎을 꿇은 막부는 천인의 침략을 인정하고 반강제적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반강제적 조약에 따른 조건에 의해 무사들은 폐도령(廢刀令)으로 칼을 잃고 막부는 천인이 세운 괴뢰정권<sup>83)</sup>으로 변한다. 에도 지역의 가부키초(かぶき町)라는 마을에 사는 주인공 사카타 킨토키(坂田銀時)는 폐도령으로 인해 검을 들 수 없게 되자 이에 반항하기라도 하는 듯 목검, 애칭 도야코(洞爺湖)를 차고 다닌다. 밥보다 단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는 당분중독자인 킨토키는 어느날 커피숍에서 파르페를 먹다가 천인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시무라 신파치(志村新八)를 도와주게 된다. 이것을 계기로 신파치는 킨토키가 운영하는 요로즈야에 취직하게 된다. 그리고 지구로 돈을 벌러 온 야토족 가구라(神樂)와 만나게 되면서 세 명은 수많은 사건들을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해결해 나간다.

이 작품은 실제 일어난 구로후네(黒船)사건<sup>84)</sup>을 모티브로 하였고 에도 시대와 현대 문화 및 우주선을 작가의 감각에 맞게 섞어 놓았다. 에도막부 말기 무장경찰인 신(新)센구미의 패러디인 신(真)센구미가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인물 대부분이 실존했던 인물에서 가져왔다.

---

83) 자주성·주체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령을 받아, 그 나라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정권을 말한다.

84) 1853년에 미국의 매슈 켈브레이스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1794년 4월 10일~1858년 3월 4일)제독이 이끄는 미국 해군 동인도 전대(East India Squadron)가 아시아 원정 중에 이즈국 시모다 항(지금의 요코스카(横須賀))에 군함들을 몰고 와서 개항을 요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

## 5. <은혼>의 시대배경 및 캐릭터 분석

### 가. <은혼>의 시대배경

#### (1) 역사적 배경

18세기 말, 서양의 선박이 자주 일본 앞 바다에 나타나 개국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막부는 외국 선박 접근시 연료와 식수를 공급해 주어 퇴거를 종용하는 신스이큐요레이(薪水給与令)을 발포하는 등 계속 쇄국을 고수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강경한 쇄국에도 여러 나라의 선박이 자주 찾아들었다.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인 페리도 그 중 한명이었다. 페리는 중국 무역과 포경업의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을 개국시키려고 하였다.

1853년 6월, 페리가 이끄는 4척의 군함이 에도만 입구의 우라가항에 모습을 나타냈다. 페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일본에게 요구할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그것은 첫째, 항해 중 조난을 당하여 할 수 없이 일본 해안에 표착한 미국 선원의 구조하고 보호할 것. 둘째, 미국 선박이 연료와 식수를 보급하고 피난하여 정박하기 위한 일본의 항구 개방 및 일본 연안 또는 그 근해에 있는 무인도 중에 저탄소 1개 설치할 것. 셋째, 미국의 선박이 화물을 매각 또는 교환하기 위한 일본의 항구 개방 등이었다.<sup>85)</sup>

페리의 내항에 막부는 물론 무사와 조닌(町人)도 혼란에 빠졌고 서민들은 피난가기 위해 우왕좌왕하였다. 특히 무사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잊고 살았기에 무구를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그 가운데 호기심 많은 일본인들은 해안에 정박해 있는 페리의 군함을 보기 위해 구경하러 가는 자도

85) 이덕훈(2008), 『일본 근세·근현대사』, 재팬리서치21, p.242.

있었다. 정박해 있는 증기선이 마치 시커먼 섬처럼 보였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흑선(黒船)이라고 불렀다.

일본은 전례에 따라 페리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이제까지의 외국 사절단과는 달리 페리는 강경한 태도로 막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황한 막부는 회의를 거듭해 결국에는 전례를 깨고 페리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페리의 내항 후 여러 외국 사절단과도 무역을 시작하였다. 무역은 요코하마(横浜)·나가사키(長崎)·하코다테(函館)의 3항에서 개시되었다. 무역이 개시되면서 특권적인 대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막부의 상업통제 질서가 붕괴되었다. 막부는 종래의 유통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1860년에 생사, 잡곡, 포목, 유류, 양초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도마와시레이(江戸廻船)을 내렸다. 하지만 지방 상인들은 막부의 조치에 저항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쇄국에 한이 맺힌 듯 교역은 더욱 활기를 띠고 심지어 금도 유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물자결핍 현상이 도래했다. 생산량이 수출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현상에 따라 자연히 물가는 폭등하게 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켰다.

국내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더 이상 막부에 의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천황을 받드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막부는 후계자 문제를 바로 잡고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 반대파 다이묘 지사들이 저항하였다. 1858년 막부는 반대파 세력들을 탄압하여 권위를 세우려고 하였다. 막부의 탄압으로 조정의 중신과 가신, 다이묘와 존왕양이론자들이 사형에 처해졌다.

막부의 반대파 세력의 탄압에도 계속되는 경제적 혼란은 존왕양이파들을 부채질 하였고 각지에서 지사들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막부에서도 존왕양이운동을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모집하였다. 대표적으로

신(新)센구미가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1867년 1월 9일 메이지 천황이 14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막부의 타도에 앞장섰던 세력이 속속들이 조정으로 모여들었다. 무력으로 막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반납을 원하는 의견이 수면위로 나타났다. 이때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幕府)는 정권 반환의 뜻을 밝히고 1867년 10월 14일에 조정에 대정봉환의 상주문을 제출하였다.<sup>86)</sup>

쇼군의 정권반환에도 막부의 토벌은 취소된 것이 아니었다. 조정은 막부를 완전히 토벌하기 위해 쇼군의 관위를 사퇴하고 영지를 반납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조정의 요구에 격분한 막부는 군대를 편성하였다. 이것이 보신전쟁(戊辰戦争)이다. 그러나 격전 끝에 막부는 조정에 패배하였고 쇼군 요시노부는 항복의 뜻을 내비쳤다.

## (2) <은혼>의 시대배경

“侍の国、 僕らの国がそう呼ばれたのは今は昔の話。かつて侍たちが仰ぎ夢をはせた青い空には異境の船が飛び交い、かつて侍たちが肩で風を切り歩いた街には、今は異人がふんぞり返り歩く。それが僕らの世界。それが僕らの町。”

“무사들의 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린 것은 지금은 먼 옛날이야기. 예부터 무사들이 우리러보며 꿈을 좇던 푸른 하늘은 타국의 배가 떠다니고, 예부터 무사들이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던 거리에는 지금은 천인이 거만함을 내뽐으면 걸어 다닌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다. 그것이 우리 마을이다.”

애니메이션 <은혼> 제3화의 대두에서 애니메이션의 전체적인 설정을 설명하는 신파치의 나레이션이다. 이 나레이션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국의 배’란 외국선박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인이 거만함을 내뽐으면 걸어

86) 이덕훈(2008.) 앞의 책, p.262.

다닌다.’에서는 에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국인 즉,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외국인을 말한다.

“雲一つない江戸の空、もう一度おがみたがったな。”

“구름 한 점 없는 에도의 하늘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요르즈야 신파치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화면은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알 수 없는 비행물체를 클로즈업한다. 신파치의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비행물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외국선박이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페리의 내항을 계기로 에도는 쇄국이 아닌 개국으로 다양한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에도의 거리는 외국인들로 들쭉거리게 된다.

무사들의 입장에서 페리의 내항으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무사들의 특유권한과 전통양식이 붕괴되었기에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군함에 기를 펴지 못한 채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막부에 대한 배신감도 한몫했다.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던 역사적 사실과 똑같이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천인의 난입으로 각종 서양문물들이 들어온다. 시대는 분명 에도지만 핸드폰, 편의점,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문물을 사용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은혼>의 시대배경은 페리의 내항을 시작으로 반강제적으로 개국을 시작한 에도시대말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 나. <은혼>의 주요 캐릭터 분석

### (1) 요로즈야(万事屋)

글자 그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주인공 사카타 킨토키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으로 시무라 신파치와 가구라 그리고 애완견 사다하루(定春)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갔다. 수입은 일정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탐정처럼 불륜 조사, 잠입수사같은 역할도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목수 일 대신하기, 쇼군의 애완동물 찾기, 악령퇴치, 수영장감독관등 허드렛일도 마다않고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곳이다.

#### (가) 사카타 킨토키(坂田銀時)

요로즈야를 운영하고 있는 세 명 중 대장 격에 해당한다. 은색 곱슬머리에 붉은 눈을 가진 무사이며 흔히 긴상(銀さん), 긴짱(銀ちゃん)이라고 불린다. 요로즈야를 운영하기 전에는 죠이시시의 한명으로 죠이(攘夷)전쟁에 참가하였으며 경이로운 수준의 칼솜씨를 선보였다. 탁월한 전투능력으로 ‘백야차(白夜叉)’라는 별명이 있다. 패전 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집주인 오토세(お登勢)를 만나 가부키초(歌舞伎町)에서 요로즈야를 운영하게 된다. 매회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며 동태같은 눈 닷에 남들에게 음침하고 무기력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평소에 불필요하거나 외설적인 언행을 잘하며 돈에 집착하는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신파치와 가구라에게는 도덕과 이치, 인간의 도리등 여러 가지 설교를 늘어놓는다. 단 것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이

는 당분중독자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항상 단 음식, 거의 파르페를 주문한다.

신파치와 가구라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른스런 모습을 보이는 것 보다 귀신을 무서워하고 단 것을 좋아하고 점프만화를 정기적으로 사서 읽는 아이스러운 모습을 더 자주 보여준다. 하지만 친구나 동료들이 위협해 처해지면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캐릭터로 변한다.

(나) 시무라 신파치(志村新八)

고우도우조(恒道館) 검도장의 장남이며 폐도령으로 무너져 버린 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하지만 하는 것마다 엉성하고 실수가 잦아 매번 점장에게 야단을 맞았다. 천인들의 피임에 넘어가 옷값을 물어내라는 협박을 받고 있을 때 킨토키가 도와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 신파치는 킨토키의 요로즈야에 취직한다. 그리고 킨토키로부터 진정한 사무라이의 혼을 배우길 원한다. 요로즈야 중에서 '태클'을 담당하며 팻짱(ぱっちゃん)이라 불린다. 평범한 외모의 소유자로 비범한 주위 인물들 사이에서 평범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져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거나 자신의 '안경'보다 못하는 존재로 취급 받는다. 그래서 메가네(めがね)라고 불릴 때도 있다. 목검위주로 수행하여 진검으로 하는 승부에는 약하고 비범한 주위 인물들 탓에 자신의 검술실력을 밑으로 보지만 무사로서 가져야 할 근성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요로즈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평범함을 지닌 캐릭터로 어이없고 황당스러운 전개에서 당황해 하는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도 한다.

(다) 가구라(神樂)

우주 최강을 사랑하는 야토족 소녀로 지구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주선에 붙어 밀항하여 입국했다. 야쿠자의 경호원으로 일했지만 자신의 막강한 파워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다가 킨토키와 신파치를 만나게 된다. 킨토키와 신파치의 도움으로 야쿠자일행을 무찌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결국 요로즈야에 눌러 앉게 된다. 킨토키를 긴짱이라 부르며 신파치보다 좋아한다. 신파치에게는 '안경 쓴 남자는 싫다.'라는 등 무례한 태도를 취할 때가 흔하지만 실제로는 킨토키 다음으로 믿는 소중한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토족은 태생적으로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항상 우산을 들고 나가고 차이나드레스를 즐겨 입는다. 말끝마다 '~해(~アル, ~ネ)'를 붙이는 이상한 말투로 말하며 음식에 욕심이 많다. 요로즈야의 대부분의 수입이 가구라의 식비로 충당될 정도로 외소한 몸에 비해서 막강한 식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꽃무늬 우산을 좋아하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어린 마음을 지닌 소녀이다.

(2) 죠이시시(攘夷志士)

천인의 침략으로 타의로 많은 변화를 겪은 시대 속에서 세상을 더럽히는 천인을 무찌르고 천인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막부를 토벌하려는 자들이다. 죠이전쟁에 참가했던 많은 무사들이 대부분 숨을 거두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죠이시시 중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온건파, 과격파로 나뉘어 활동한다.

(가) 가츠라 코타로(桂小太郎)

긴토키와 함께 죠이전쟁에 참가했던 인물 중 한명으로 온건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시시콜콜 찾아오는 막부의 공격을 잘도 피하기 때문에 ‘도주의 코타로’, 아름다운 용모로 인해 ‘광란의 귀공자’ 등으로 불리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용모와 신중한 성격이지만 진지하고 천진난만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반전이 있는 캐릭터이다. 신세구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항상 품속에 폭탄과 연막탄을 숨기고 있으며 처음에는 막부를 쓰러트리려고 과격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고 있는 긴토키와 그 외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온건파로 전향했다. 하지만 막부를 쓰러트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막부의 어둠의 세력을 차단하는 일에는 진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격세시대의 진정한 무사 중 한명이다.

(나) 다카스기 신스케(高杉晋助)

죠이시시의 잔존세력으로 가츠라 코타로와는 반대로 가장 위험하고 과격한자로 불리는 과격파의 대표격 인물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뒤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탓에 표면적으로 막부와 대립하는 가츠라 코타로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막부에게 주위 받고 있다. 죠이전쟁때 같이 싸운 동료였지만 지금은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긴토키와 온건파로 전향한 코타로와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다. 에도에 정착하기 보다는 기헤이타이(鬼兵隊)를 움직이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우주해적 하루사메(春雨)와의 마약거래, 막부의 중앙세력과 손을 잡는 등 불온한 움직임을 항상 보이고 있다. 여담으로 작가가 <은혼>중에서 ‘바보 같지 않아서 그리기 어렵다.’라고 한적이 있다.

(다) 사카모토 타츠마(坂本辰馬)

쥬이전쟁에 참가했던 쥬이시시 중 한명으로 지금은 우주를 돌아다니는 행성무역상 가이엔타이(快援隊)을 운영하고 있다. 쥬이시시 중 싸움보다 평화를 선호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하하하’하며 태평하게 웃는 바보같이 덜렁이며 낙천가이다. 하지만 친구, 동료의 위협에 처해지는 상황에 놓이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장에 뛰어든다. 모두가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전쟁 중에서도 장사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천인과 지구인들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

(3) 신센구미(真選組)

막부 측의 경찰, 검찰 같은 치안기관 및 군대로 에도의 치안을 지키는 무장경찰이다. 그 이전에는 시골뜨기 무사집단이였다. 국장을 중심으로 1번 대장부터 10번 대장까지 수십 명의 경찰로 구성되어 있다. 범인의 체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가) 곤도 이사오(近藤勲)

신(真)센구미의 대장으로 대원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신(真)센구미 대장이 되기 전 시골에서 검도도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수련을 하다가 방랑하는 히지카타 토시로를 걷어 들이는 등 사람의 좋은 점만 찾아내는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좋게만 보는

무른 성격으로 주위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큰일을 결정할 때나 일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국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

(나) 히지카타 토시로(土方十四郎)

신(真)센구미의 부장으로 사람 좋은 대장 곤도 이사오를 대신해서 냉정한 판단과 행동으로 ‘귀신부장’이라고 불린다. 또 날카로운 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신(真)센구미의 두뇌’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거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장면에서 감동을 받는 인간적인 면도 있다. ‘귀신부장’이라는 별명 탓에 자신의 나약한 면보다는 강하고 무뎉뎉한 모습을 많이 표출시키려고 노력한다. 방랑무사로 연고 없이 세상을 떠돌던 그를 의심 없이 받아준 곤도를 존경하며 은혜하는 마음가짐으로 모시고 있으며 에도를 지키는 것도 막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곤도 이사오를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신(真)센구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규율을 어기는 대원들에게 할복을 명하는 등 신(真)센구미의 이미지를 무엇보다 우선시한다.

(다) 오키타 소고(沖田総悟)

미소년 같은 외모와 달리 특출한 칼솜씨로 인해 신(真)센구미의 1번 대장에 임명되었다. 곤도 이사오의 검도장의 문하생으로 수련하다가 곤도와 히지카타와 같이 에도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검도장 문하생으로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히지카타가 자신의 누나와 곤도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끼며 지금도 히지카타를 부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뒤에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도 서슴치 않고 한다. 하지만 은연

중에 히지카타를 신용하며 일 관계에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듀엣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다. 암전한 외모와 달리 마주카포를 사용하는 등 파괴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신(眞)센구미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데 한 몫 하는 인물이지만 부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의감을 갖고 있다.



다. <은혼>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표 1> 애니메이션 <은혼>의 등장인물과 실존인물

	<은혼>등장인물	실존인물
1	사카타 긴토키	사카타노 긴토키(坂田金時)
2	시무라 신파치	나가쿠라 신파치(永倉新八) 시무라 켄(志村けん)
3	가구라	가구야히메(かぐや姫)
4	가츠라 코타로	가츠라 고코로(桂小五郎)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5	다카스기 신스케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6	사카모토 타츠마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7	무츠(陸奥)	무쓰 무네미쓰(陸奥 宗光)
8	곤도 이사오	곤도 이사미(近藤勇)
9	히지카타 토시로	히지카타 도시조(土方歳三)
10	오키타 소고	오키타 소지(沖田總司)
11	야마자키 사가루(山崎退)	야마자키 스스무(山崎烝)
12	야규 큐베(柳生九兵衛)	야규 미츠요시(柳生三嚴)
13	요시다 쇼요(吉田松陽)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은혼>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은 실존인물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담당기자의 ‘신(新)센구미 불에 편승해라’라는 말 그대로 신(新)센구미가 활약한 명치시대 때 위주의 인물을 모델로 가져와 썼다.



<그림 1> 요로즈야<sup>87)</sup>



(왼쪽부터 사카타 킨토키, 신파치 시무라, 가구라)

요로즈야의 킨토키와 신파치의 경우는 이름만 가져왔다. 신파치는 신(新) 세구미 2번대장 나가쿠라 신파치의 ‘신파치’, 그리고 텔런트 시무라 켄의 ‘시무라’를 가져왔다. <은혼>의 히로인 가구라의 모델은 다케토리 모노가타리(竹取物語)의 가구야히메(かぐや姫)로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내려온 신비한 소녀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하지만 초반 설정만 그럴 뿐 그 속내는 다케토리 모노가타리의 가구야히메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 더러운 짓과 험악한 말을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꾸밈없는 히로인이다.

87) “銀魂：あいてれ”(テレビ東京) <http://www.tv-tokyo.co.jp/anime/gintama>

<그림 2> 신(真)센구미<sup>88)</sup>



(왼쪽부터 곤도 이사오, 히지카타 토시조, 오키타 소고)

에도의 경찰, 신(新)센구미는 신(真)센구미라고 패러디되며 실존인물의 이름을 조금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성격은 실존인물과는 조금 다르게 설정되었다. 예를 들어 신센구미의 국장 곤도 이사미는 ‘귀신잡는 곤도’라고 불리며 존왕양이 세력들을 가차 없이 잡아들였다. 하지만 <은혼>에서는 신(真)센구미 국장 곤도 이사오가 아닌 부장 히지카타 토시로가 ‘귀신부장’이라 불리며 죠이시시들에게 경악과 공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국장을 누구보다 따르며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 대원들에게 할복을 명하는 모습은 실존인물에게서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신(新)센구미에서 사망 원인 1위가 할복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1번 대장 오키타 소고 또한 어린나이에 뛰어난 검술실력, 밝고 명랑한 성격 등 실존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캐릭터이다. 단, 히지카타와 사이가 좋았다는 역사서에 비해 애니메이션에서는 항상 충돌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88) “銀魂：あいてれ”(テレビ東京) <http://www.tv-tokyo.co.jp/anime/gintama>

<그림 3> 죠이시시<sup>89)</sup>



(왼쪽부터 가츠라 고타로, 다카스기 신스케, 사카모토 타츠마)

신(真)센구미의 영원한 숙적, 죠이시시의 온건파 가츠라 고타로와 과격파 다카스기 신스케 그리고 행성무역상인 된 사카모토 타츠마의 모델은 실제 존왕양이 막부 토벌 운동을 벌였던 인물들이다. 애니메이션 중 가끔 나오는 과거 회상편처럼 그들은 막부를 상대로 함께 싸우는 동료였다. 실존인물 다카스기 신사쿠의 기헤이타이(奇兵隊)<sup>90)</sup>는 애니메이션에서 기헤이타이(鬼兵隊)로 이름은 바뀌었으나 막부를 상대로 무력을 휘두르는 행동대장 같은 그 역할은 변함이 없었다. 반면 정치인 출신의 기도 다카요시의 본명, 가츠라 고코로에서 이름을 가져오고 그의 업적과 성향에 영향을 받아 온건파 가츠라가 탄생되어 진 듯하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무사, 사카모토 료마의 경우 주인공 사카타 긴토키가 그 모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난무했

89) “銀魂：あいてれ”(テレビ東京) <http://www.tv-tokyo.co.jp/anime/gintama>

90) 1863년 조슈번이 양이를 실행하기 직전에 다카스기 신사쿠를 비롯한 양이파들이 창설한 부대였다. 하급무사를 중핵으로 하고 농민과 상공인도 포함하여 편성되었다. 종래의 문벌제도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실력에 의하여 선발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슈번에서 무기와 봉급이 지급되었다. (구태훈(2008), 일본 근세.근현대사, 참조요.)

지만 사카모토 타츠마라는 캐릭터로 탄생되었다. 작가가 좋아하는 인물이 반영된 캐릭터라고는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애니메이션 방영때부터 지금까지 출현횟수가 열손가락 안에 들 정도이다. 단, 실존인물 사카모토 료마의 개국과 쇄국의 갈림길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 가듯 <은혼>의 타츠마 또한 행정무역상이라는 쉽지 않는 길을 개척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은혼>의 수많은 캐릭터는 에도시대막부 말기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름, 성격,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재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재탄생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도리, 무사의 도리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은혼>의 주요 에피소드의 서사분석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 6. <은혼>에 투영된 무사도

“侍の刀なはな、鞘におさめるもんじゃねえ。てめえの魂におさめるもんだ、、、どんなに時代が変わろうと、人には忘れちゃならないもんがある。たとえ剣を捨てる時が来ても魂におさめたまっすぐな俺だけは忘れるな。”

“무사의 칼은 말이야, 칼집에 집어넣는 게 다가 아니야. 너의 영혼에 담아두는 것이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에게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설령 칼을 버릴 때가 오더라도 네 영혼에 담겨둔 올바른 검만은 잊어버리지 말거라.”

위 대사는 고우도우쥬의 주인, 신파치의 아버지가 병상에서 한 말로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사람으로써의 도리, 무(武)를 연마한 신파치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무사도에 해

당될 것이다.

신파치는 요로즈야 킨토키와의 만남에서 아버지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킨토키에게서 무사의 영혼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요로즈야에 취직한다.

이처럼 <은혼>에서는 무사도를 나타내는 여러 에피소드를 만날 수 있다. 그 에피소드 중심으로 무사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 가. 베니자쿠라편(紅桜編) : 가츠라(桂) 암살과 다카스기(高杉)의 기헤이타이(鬼兵隊)<sup>91)</sup>

요로즈야 일행들은 대장장이 아버지가 만드신 검(일명 베니자쿠라)를 찾아 달라는 한 남매의 의뢰를 받는다. 사라진 검은 사람의 혼을 흡입하는 요도로 큰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 찾아야 한다며 일을 부탁한다. 요도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킨토키는 요 근래 에도거리를 들쭉이는 살인마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 헤매던 요도의 행방도 알게 된다.

“しんぱち、おめえはやればできる子だと思ってたよ。”

“신파치, 너도 하면 해낼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어.”

재앙을 부르는 요도를 사용하는 살인마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킨토키는 결국 살인마에게 베이고 만다. 그런 킨토키를 옆에서 지켜보던 신파치가 용기를 내어 킨토키를 구하기 위해 과감히 칼을 휘둘러 살인마의 팔을 베어버린다. 위 대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킨토키가 아픔을 참으며

---

91) 만화 11권, 12권(89화~97화)에 해당하며 애니메이션의 58화~62화에 해당 된다.

신파치에게 하는 말이다.

신파치는 요로즈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등장인물 중에서도 가장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캐릭터로 무모한 짓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도관 장남이면서도 검술에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그가 무시무시한 살인마 앞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실천한 행동은 무사도의 ‘의’에 해당한다. ‘용기 있게 결단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다. 죽어야 할 때에는 죽고 적을 쳐야 할 때는 치는 것이다.’라는 하야시 시헤이의 말처럼 겁쟁이였던 신파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진정한 무사의 모습이다.

살인마에게 베여 큰 상처를 입고 간호를 받고 있던 긴토키는 요도를 찾기를 의뢰했던 여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입으로 요도를 찾기 의뢰에 대한 진짜 내막을 듣게 된다. 도둑맞은 줄로만 알았던 베니자쿠라는 사실 오빠가 만든 살인병기로 막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다카스기의 지원을 받아 완성한 것이었다. 자신이 요도의 실험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긴토키는 오빠를 막아달라는 여동생의 또 다른 의뢰를 거절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기가 힘들다. 결국 부러진 목검을 들고 여동생과 함께 적장으로 뛰어드는 긴토키였다.

여기서 긴토키의 모습은 목숨을 버려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모른척 하지 않고 올바른 용기와 신념 그리고 과감한 정신력으로 문제를 직시하려는 진정한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긴토키의 모습에서 무사도의 ‘의’는 물론이며 ‘용기’ 그리고 위험한 일을 하는 오빠를 구원하려는 여동생에 의한 측은지심, ‘인’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니토베 이나조는 ‘용기’를 치열한 전투 와중에서도 냉정을 유지하며 재해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 했다.<sup>92)</sup>

살인병기, 베니자쿠라와 일심동체인 살인마 니조와 싸울 때 주위 사람들

---

92)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47.

은 무모한 일이라고 판단했으며 누가 보아도 승패는 이미 결정 나 있었다. 하지만 긴토키는 주위의 비관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오로지 적만을 의식하며 냉정하게 전투에 임한다.

긴토키의 이러한 행동들은 ‘정의의 도리’ 또는 ‘의무감’, 바꿔 말하면 무사도의 ‘의’로 볼 수 있으며 사회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자의적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신파치에게 한쪽 팔을 베인 살인마 니조는 주군 다카스기에게 ‘충의’를 보이는 캐릭터로 나온다.

“あんたたちのような弱い侍のためにこの国は腐敗した。あんたではなくおれがあの人隣りにいればこの国はこんな有様にはならなかった。土道だ。節義だ。くだらものは侍には必要ない。侍に必要なのは剣のみさね。剣のおれだあんたたちはもう侍じゃない。だざくな侍はこの国から消えるがいい。”

“당신들 같이 나약한 무사들 때문에 이 나라는 부패했어.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었다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무사도다. 의리다. 그런 쓸데없는 것은 무사에게 필요 없어. 무사에게 진정히 필요한 것은 검뿐이야. 검을 버린 당신들은 더 이상 무사가 아니야. 나약한 무사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해.”

살인마 니조가 긴토키를 베었을 때 긴토키를 향해 울부짖으며 내뱉는 대사이다. 살인마 니조는 삶의 목적도 없이 단지 사람을 베는 것에 쾌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런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며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손을 내밀어준 다카스기에게 “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카스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려고 하는 니조에게 있어 주군의 옛날 동료였던 긴토키의 존재가 걸리적거렸다. 주군의 뜻을 받들고 그와 함께 막부를 없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자신이야 말로 주군의 옆자리에 설 수 있

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묻지도 않으며 그의 바램이 실천되길 바라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니조의 이런 온전한 마음은 주군에 대한 무사의 “충의”라 볼 수 있다.

#### 나. 신센구미 동란편(真選組動乱編) : 신(真)센구미 참모 이토(伊東)의 하극상<sup>93)</sup>

에도를 지키는 경찰, 신(真)센구미의 부장 히지카타 토시로는 국중법도(局中法度)<sup>94)</sup>을 가장 들먹거리며 대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캐릭터이다. 신(真)센구미의 번영과 질서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에게 참모 이토 카모타로(伊東鴨太郎)의 존재는 눈의 가시덩어리이다. 참모 이토는 영석한 두뇌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국장 곤도와 대원들의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히지카타는 이토의 꾀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신(真)센구미를 균림하려는 그의 숨겨져 있는 본 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히지카타는 오타쿠 소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요도의 저주 탓에 오히려 본인이 국중법도를 어기게 됨으로써 신(真)센구미의 부장 자리는 고수하고 대원으로써도 활동할 수 없는 입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요도의 저주로 인해 표면상으로 근신처분이지만 실제로는 퇴출당해 신(真)

93) 만화 19권, 20권(158화~168화)에 해당하며 애니메이션의 101화~105화에 해당된다.

94) 국중법도(국중법도서)는 군중법도와 신센구미조직의 규율 유지를 위해 정해진 것으로 이 규율이 법의 기능을 갖기 시작한 것은 신센구미라고 이름을 바꾸고 곤도 이사미와 히지카타 토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비된 후로 이토 카시타로(伊東甲子太郎) 일파의 숙청에도 적용되었다. 국중법도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무사의 규율을 어기지 못한다. 제2조 신센구미를 부인하지 못한다. 제3조 개인적인 송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제4조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못한다. 위 항을 위배하는 자 할복할 것.



센구미를 그만둔다.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은 이토는 국장 곤도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하극상이다. 한편 요도의 저주를 받은 히지카타와 우연히 만난 요로즈야일행들은 마지막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진짜 히지카타에게 신(眞)센구미의 국장 곤도 이사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最後の一本吸いに来たら目の前にいるのがよりによっててめえらか、、、てめえらに最初で最後の頼みがある。頼む。おれの、、おれたちの真選組を守ってくれ。”

“마지막으로 한 대 피러 왔는데 눈앞에 있는 게 하필이면 너희들이라니,,, 너희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부탁한다. 나의,,우리들의 진선조를 구해줘”

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히지카타는 자신을 버린 곤도 이사오에 대한 강렬한 충의를 알 수 있다. 냉철하고 드높은 기상을 자랑하던 히지카타의 마지막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요로즈야일행들은 곤도를 구하러 간다.

이토와 함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정찰을 내려가던 곤도는 이토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이게 된다. 하지만 신(眞)센구미의 제1번대 대장 오기타 소고의 도움으로 적들의 눈을 벗어나게 된다.

“近藤さん、大将の首取られたら戦は負けだ。ここは引き下がっておくんだぜ”

“곤도씨, 대장 목을 내주면 싸움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서 그만 물러나 주세요”

국장 곤도는 사람 좋기로 유명하다. 너무 사람이 좋아서 문제라면 문제이지만 그런 그이기에 대원들은 함께 싸워왔으며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제1번대 대장 오기타 또한 그런 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싶어서 항상 부장 히지카타의 자리를 노리는 설정이다.

한편, 신(真)센구미에서 퇴출 당한 히지카타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을 본 곤도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한다. 그리고 오히려 요도의 저주에 걸린 히지카타를 요로즈야일 행에게 부탁한다.

“やまとの諸君！われらの局長、近藤勲は無事救出した。勝利は我が手にあり、局長の顔に泥を塗り、受けた恩を仇で返す不定なやから、あえてよ！かすであるとは！いまからやつらを月に代わってお仕置きよ！”

“야마토의 제군들! 우리들의 국장, 곤도 이사오는 무사히 구출됐다. 승리는 우리 손에 있다. 국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녀석들은, 분명히 말해 쓰레기다! 지금이야말로 녀석들을 달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때이다!

위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요도의 저주에 걸린 상태에서도 신(真)센구미와 국장을 생각하는 히지카타의 마음상태는 무사도의 ‘의’ 그리고 ‘충’이라 할 수 있다. 참모 이토의 말만 듣고 자신을 저버린 신(真)센구미의 국장 곤도 이사오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진정한 무사의 본보기이다.

“近藤さん、ぼくらは君に命を預ける。その代わりに君に課せられた義務がある。それは死なないことだ。なにがなんでも生き残る。どんなに恥辱に塗れようが目の前どれだけ隊士が死んでいこうが君は生きればならぬ。君がいる限り真選組は終わらないからだ。”

“곤도씨 우리들은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습니다. 그 대신 당신에게 맡겨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죽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겁니다. 어떠한 처욕을 당하든, 눈앞의 수많은 대원들이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합니다! 당신이 있는 이상 신(真)센구미는 끝나지 않는 거니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대원들이 서로 싸우고 죽는 모습을 더 이

상 볼 수 없다는 곤도의 말에 히지카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위와 같이 말한다. 히지카타의 태도에서 무로마치와 전국시대의 무사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은(恩)’과 ‘봉공(奉公)’의 경제적 관계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주군에 대한 헌신적 도덕이 강렬하게 피어난 모습이다. 주군의 건재함이야말로 자신들의 건재함이고 살아갈 명분이 있다는 뜻이다.

요로즈야일행의 도움으로 곤도를 구출한 히지카타는 반란의 주모자 이토와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 그러다 이토는 싸움 도중 또 다른 배신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잃게 된다. 그리고 기차에서 떨어지려는 이토를 곤도가 구해준다. 그런 곤도의 모습을 본 이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배신자의 공격으로부터 곤도와 요로즈야 일행들을 몸 바쳐 구해 준다.

“ほっといだってやつはもう死ぬ。たからこそ、たからこそ切らなきゃならね、、、あいつらやつを薄汚ね裏切りものまま死なせたくねえんだよ。最後は武士として、仲間として、やつを死なせてやりてえんだ。”

“가만히 두어도 녀석은 곧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벨 수밖에 없어. 녀석들, 저 녀석을 더러운 배신자인 채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최후는 무사로서, 동료로서, 녀석을 보내주고 싶은 거야.”

이토는 신(真)센구미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히지카타와의 칼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 어차피 피를 많이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이토를 신(真)센구미는 그를 무사로서의 마지막 삶을 살게 해줌으로써 그동안 조직을 위해 힘쓴 이토에 대한 공경을 보낸다.

위 대사는 자신들을 구해준 이토의 죽음을 바라보던 가구라와 신파치에게 무사로서의 죽음을 설명해주는 킨토키의 대사이다. 그의 대사에서 무사의 ‘의리’, ‘예의’ 그리고 ‘명예’를 발견할 수 있다.

다. 잇코쿠케이세이편(一國傾城編) : 요시와라(吉原) 기녀 스즈란(鈴蘭)의 약속<sup>95)</sup>

무사에게 있어 ‘약속’이란 그 어떠한 일이 생겨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존심 같은 것이다. 무사의 세계에서 거짓말과 핑계는 비겁한 행위로 간주된다. 무사의 말 한마디, ‘무사의 일언’은 따로 증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위엄과 내용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요로즈야 긴토키는 에도의 최고 유곽가 요시와라(吉原)의 기녀 히노와(日輪)에게서 요시와라 최고의 기녀 경성 스즈란(鈴蘭)의 이야기를 듣는다. 경성 스즈란은 요시와라를 은퇴할 나이가 훌쩍 넘은 할머니가 되었어도 신쥬(心中)<sup>96)</sup>를 나는 남자를 요시와라의 기녀로써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 스즈란의 이야기를 들은 요로즈야 일행은 자의로 스즈란의 약속의 남자를 수소문한다. 수소문 끝에 스즈란의 남자가 선대의 쇼군(將軍) 도쿠가와 사다사다(徳川定々)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에도성에 잠입한다.

에도성에 잠입한 요로즈야일행은 때마침 막부 중진 살해 사건으로 흥흥한 분위기 속에서 하수인이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선대 쇼군 사다사다와 대면했을 때 스즈란을 쇼군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스즈란이 기다리는 약속의 남자가 선대 쇼군의 부하 로텐 마이조(六転舞蔵)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즈란의 남자 로텐은 선대 쇼군의 ‘스즈란을 만나면 스즈란을 죽이겠다.’라는 말에 할아버지가 되어도 쇼군가를 모시는

95) 만화 44권, 45권(386화~399화)에 해당하며 애니메이션의 257화~261화에 해당된다.

96) 사랑하는 남녀가 서약문을 쓰거나 혈서로써 사랑의 변함없음을 표시한다. 애니메이션 <은혼>에서는 신쥬의 증서로 머리카락과 손톱, 혈장판(피로 쓴 증서)을 남성에게 보냈다는 설정이다.

중신으로 살고 있었다.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게 된 요로즈야 일행들은 선대 쇼군에게 반격을 들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사실 속에서도 스즈란과 로텐의 ‘약속’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대 쇼군 사다사다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사다사다의 강력한 부하들 탓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 긴토키는 자신의 스승 요시다 쇼요(吉田松陽)<sup>97</sup>을 죽게 만든 사람이 선대 쇼군 사다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죽은 스승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처 입은 몸을 한 번 더 일으킨다.

“こんなに近くにいたというのに、おまえの苦しみに気づいてやれず、にその人生を掛け將軍家のために尽くしてくれたというのに、ゆらわおまえを苦しめる事しかてきなんだ。いまからでも間に合うか。約束の時に。”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자네의 괴로움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인생을 다 바쳐 쇼군가를 위해 헌신해 주었는데도 짐은 자네를 괴롭히는 것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었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가? 약속시간에,,”

쇼군 도쿠가와 시게시게(徳川茂茂)는 백부 사다사다의 잘못을 알고 중신 로텐에게 위와 같이 사과의 말을 전한다. 또 자신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계속 쇼군가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감사의 말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킬 것을 바란다.

쇼군이라는 자리에 앉은 인물이 무릎을 꿇고 부하에게 사과를 한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만큼 주군과 부하간의 ‘예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무사라는 사회적 신분상 ‘약속

97) 요로즈야 긴토키의 스승으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을 모델로 한 캐릭터이다. 요시다 쇼인은 수 많은 양이지사를 배출한 교육자이다. 막부 말 쇼카손주쿠(松下村塾)에서 학문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모두 역사상 이름을 남겼다. <은혼>에서 조이전쟁때 휘말려 죽음을 당했다. 스승의 죽음에 긴토키와 카즈라 코타로와 다카스기는 검을 들고 전장에 뛰어들었다.

의 무거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텐이 무사로서 내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는 것이 주군으로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終わっちゃね。失っちゃいね。、、、約束だぜ！先生。”

“끝나지 않았어. 잃어버리지 않았어. ,,,, 약속이다! 선생님”

격렬한 싸움 중 스승 요시다 쇼요와의 약속을 떠올린 긴토키의 용기를 내려는 대사이다. 죽으러 가는 쇼요는 긴토키에게 동료들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말을 건넨다. 막부를 타도하려는 옛 동료 온건과 가즈라와 과격과 다카스기와 달리 그저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긴토키이지만 지금 만큼은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무사의 모습이다.

신(真)센구미 동관편에서 과격과 다카스기의 부하 가와카미 반사이(河上万斎)가 “천인에게 먹혀 주하게 썩어 가는 이 나라를 깨끗이 저승으로 인도 해주는 게 무사의 역할이다,,,,,,,이제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 긴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おれは安い国なんかのために戦ったことは一度たりともね。国が減ぼうが,侍が減ぼうが,どうでもいいんだよ。おれは昔から、今も昔もおれの守るもんは何一つ変わっちゃいね。”

“나는 싸구려 나라를 위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라가 멸망하듯, 사무라이가 멸망하듯,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예전부터 지금도 옛날도 내가 지켜야 할 것 그 무엇 하나 바뀐 적이 없다.”

시대의 변천사의 따라 무사의 역할은 많이 달라졌다. 긴토키의 행위는 나라를 지키는 무사로서의 역할보다 자신들에게 삶의 희망을 가르쳐준 스승을 위해 검을 들었다. 그리고 스승의 마지막 부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

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옛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만은 스승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긴토키이다.

한쪽 팔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연인 스즈란을 만나지 않겠다는 로텐 마이조, 요시와라를 떠나지 않고 상대편을 기다리는 스즈란 그리고 스승의 말을 지키는 긴토키의 모습에서 무사의 ‘진실’ ‘성실’ ‘예의’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스즈란은 요시와라의 기녀이지만 신분과 성별을 떠나 그녀의 모습에서 무사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스즈란의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남성, 즉 무사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자신의 지조를 지키는 신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IV. 결론

무사도는 독립된 도덕법칙으로서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힘은 지상에서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용과 무덕의 교훈은 없어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그 광명과 영광은 폐허를 뛰어넘어 오랫동안 살아 있을 것이다.<sup>98)</sup>

니토베 이나조는 『무사도』에서 미래의 무사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는 무사도가 도덕법칙으로 사라질지라도 그 힘은 멸절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선견지명대로 무사도는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존한다. 애니메이션에서 무사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구목적에 따라 무사도의 개념과 시대별 변천사 정리, 애니메이션 속 무사도 고찰을 통해서 무사도가 오늘날 여전히 현저하다는 사실을 애니메이션 <은혼>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은혼>에서는 니토베 이나조에 의해 분류된 “의”, “용기”, “예”, “명예와 충의”, “극기”, “진실과 성실” 이렇게 무사도의 7가지의 사상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2006년 제작되어 2013년 극장판 개봉까지 <은혼>은 많은 사람들의 끊임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방영이 끝난 현 시점에서도 방송재기를 기다리는 두터운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은혼>이 사랑받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비롯해서 캐릭터, 대사, 시대배경등 많은 부분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

98) 니토베 이나조(2010) 앞의 책 p.167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무한상사편은 사회의 부조리를 잘 빚대어 20~30대 젊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40~50대의 가장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청자들은 무한도전을 통해서 삶의 이유, 희망, 세대 간의 차이, 웃음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또 공감한다. 무한도전의 많은 특집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 사랑을 받듯 애니메이션 <은혼>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 인간으로서의 조건, 도리, 권리 등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승화시키고 있다.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가 일본정신의 밑거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시 풀어 말하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할 도리, 의무, 권리가 바로 무사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은혼>의 요로즈야일행을 비롯해서 신(眞)센구미 그리고 요시와라의 그녀들까지 많은 등장인물들이 자신만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간다. 온갖 지식과 다양한 사고방식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 온전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무척이나 힘들고 굉장히 깊고 굳건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굳건한 정신 상태를 가지며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알고 있다. 바로 무사이다. 그리고 무사들이 지키고 노력하며 온전히 내 것으로 하려고 애쓰는 정신이 무사도이다.

주군의 위해 목숨을 바치는 히지카타,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쪽팔을 버리는 로텐,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로즈야일행들의 행동과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은 무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애니메이션 <은혼>을 통해서 무사도를 들여다보았다. 일본 그리고 일본인이라는 지리적 이웃나라의 존재에 대해 우리는 무사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낼 수 있다. 중세시대부터 시작된 무사도가 현대인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분명 그 밑바탕은 무

사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 방영과 시청을 통해 한 번 더 무사도를 흡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일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시청자는 일본어 학습자나 비학습자에게도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사도의 분석은 일본과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일본문화교육의 자료로써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논문

- 권만혁(1996) 「日本の 武士道와 生活哲学」 『시민인문학』 제3집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 고영자(1999) 「일본정신-무사도」 『일본학』 제18집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 김진표·차명환(2003) 「에도(江戸)時代 以前 日本武士道の 思想的 特質」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지』 제14집 제2호
- 남명학(2012)의 「일본의 무사도란 무엇인가?」 『선비문화』 제22집 남명학연구원
- 송송이(2008)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 나타난 일본문화 고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학(2000) 「日本 武士道 精神 現代的 意義」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제8집 1호 pp.161~180(20쪽)
- 윤영기(2001) 「日本の 武士道에 関한 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전은경(2007) 「日本武士道 死生觀에 関한 小考」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8집
- 정장식(2009) 「무사도 뒤집어 보기」 『일본문화연구』 제32집 동아시아 일본학회
- 조형기(2002) 「日本 武士道에 関한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기(2003) 「日本 武士道에 関한 研究」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최길성(1980) 「日本の 武士道の 忠孝와 죽음」 『일본학지』 제1집 일본  
연구학회

스미노 사토시(2005) 「思想史的側面에서 본 現代日本武도에 관한 研究」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행본

박인하(1999)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가 보고 싶다』 교보문고

이덕훈(2008) 『일본 근세·근현대사』 재팬리서치21

이덕훈(2009) 『일본의 경제발전과 무사도』 비엔엠북스

가와이 아츠시(2005) 원지역(역)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랜덤하우스  
코리아

니토베 이나조(2010) 일본고전연구회(역) 『무사도』

다니엘 핑크(2012) 김명철(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 한국경제신문사

사에키 신이치(2011) 김병두(역) 『무사도는 없다』 리빙북스

우미하라 슌(2011) 윤영기외 2명(역) 『무사도:일본문화론』 경성대학교  
출판부

우치다 준조(2012) 윤영기외 4명(역) 『일본 정신과 무사도(고차원적 전통  
회귀로의 길)』 경성대학교출판부